AUG 6 1937

朝鮮日報

夕刊 五日(木) 本紙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月刊雜誌「朝光」(一月一回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日支兩軍의判明된戰死者

北支事變戰死者數 三百六十四名(八月三日正午現在)

死傷總數는一、二三三

【東京電話同盟】陸軍省에 到達한 情報에依하면 事變勃發의 七月七日부터 八月三日 正午까지의 我軍의 戰死傷者는 左와如하다

▲戰死 三六四
內將校 二四
准士官以下 三四〇
▲戰傷 八六九
內將校 五九
准士官以上 八一〇
合計 一、二三三

世界少年團大會에 秩父宮殿下御出席

【암스텔담四日發同盟】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一日以來 암스텔담市에御滯在하사 目下암스텔담郊外에서 開催中인 第五回世界少年團大會에 臨御하사 日本少年團聯盟理事長 二荒芳德伯以下 世界三十二個國代表에 親히말삼을 賜하섯다 兩殿下께서는 보釈설암스텔담市를御出發하사 巴里로赴하실 御豫定이시엿스나 殿下께서는 御感氣이신模樣으로 宿舍에 御靜臥하시고 妃殿下께서도 또한 御輕微하신感氣로드신模樣이심으로 御出發을 一兩日御延期하사 암스텔담市에서御靜養하시기로되섯다

支那軍遺棄死體 南苑만二千五百

【東京電話同盟】陸軍省着電에依하면 事變勃發以來 我軍이支那軍에與한 損害의槪要는 左와如한데 數字外에 또多大한損害를입힌模樣이다

◆遺棄屍體의數
南苑行營附近 一二、五〇〇
(第三十八師及第百三十二師)
北平西方地區 一五〇
(冀東保安隊)
◆武裝解除數
北苑 三、三〇〇
(獨立第三十九旅)
北平西方地區 四、〇〇〇
(第百三十二師)
通州〃 一、〇〇〇
(冀東保安隊)
◆捕虜
南苑行宮附近 一〇〇
(第三十八師及第百三十二師)
◆鹵獲兵器
野砲四門 山砲四門 重迫擊砲三門 輕迫擊砲八門 쳌코式機關銃二百數十挺 小銃五千挺 拳銃百數十挺 靑龍刀一千五百

良鄕附近서 岡崎部隊小衝突

【天津五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午前十時發表=昨四日正午頃良鄕附近에서 岡崎部隊는 機關銃을가진 七八十名의敵과 遭遇되여 이를南方에潰走시켯다 敵의遺棄死體約二十 鹵獲한武器小銃三十挺 手榴彈二百이오 我方의損傷은업다

領事의勸告로 廣東婦女子撤退決定

【廣東四日發同盟】中村總領事는 四日居留邦人에對하야 婦女子의撤退를勸告하엿다 따라서 在留邦人婦女子百五十餘名은 最近의便船으로 香港經由로 各其撤退키로決定하엿다

各省別內譯 第四次追加豫算

【東京電話同盟】第二次北支事件費支出을 爲하야서의 十二年度第四次追加豫算案은 五日의 院內閣議를 經하야 衆議院에提出되엿는데 그總額은 四億一千九百六十萬圓으로 各省別內譯은左와如하다(單位千圓)

◇一般會計

省別	經常部	臨時部	合計
外務省	無	四、一〇〇	四、一〇〇
大藏省	三三、三〇〇	三〇、三〇〇	六三、六〇〇
陸軍省	無	[illegible]	[illegible]
海軍省	無	九六、〇〇〇	九六、〇〇〇
合計	三三、三〇〇	[illegible]	四一九、六〇〇

▲特別會計

公債整理基金	三、一〇〇
公債	三一〇、一〇〇
關東局	三〇〇
通信事業	一〇〇
朝鮮總督府	一、六〇〇
臺灣總督府	一、〇〇〇
樺太廳	七〇

그리고 右計數의 內譯은 四日閣議에서 決定한것과는 多少差違가잇스나 이것은 大藏省豫算에서 北支事件費第一次豫備金追加案을 六千萬圓으로 計上하엿기때문으로 그中四千五百萬圓은 陸軍省에 一千五百萬圓은 海軍省에配當될豫定으로되여잇다 따라서 北支事件豫備金은 第一號豫算의四千萬圓과 合計하야 一億圓으로될計算이다

孔氏、英國을說得 二千萬磅新借欵成立?

使命다하고歸路에登程

【倫敦四日發同盟】國民政府財政部長孔祥熙는 北支事變의 報에 接하야 急遽히米國으로부터 倫敦으로歸하야 英政府及財界方面과 折衝한結果 去三十日合計七百萬磅의 新借欵契約을 承認시키고 다시 大活動을繼續하야 드듸여英國側을 說得하야 近近倫敦市場에서 新借欵總額二千萬磅의起債를 原則的으로 同意케하엿다한다 그러나 이新借欵에 成功하엿다는 報道에關하야 英國消息通側은 孔祥熙가 英國로이텔通信社를通하야 開始한 支那一流의宣傳으로서 眞實이업는虛僞라고 一笑에附하고잇다 그런데 孔財政部長은 英國訪問의使命을마치고 昨夜 巴里로向하야出發 歸國途上에올랏다 (寫眞은 孔氏)

白崇禧南京着

【上海四日發同盟至急報】中央通信社南京電話에依하면 白崇禧는 蔣介石의招電으로 中央候補執行委員李任仁을 同伴하고 中央에서 보낸飛行機로 四日午前十一時桂林을出發하야 午後四時半南京에到着하야 何應欽 程潛 王寵惠等 中央要人多數의 出迎을 맛고 李烈鈞의 私邸에드러갓다 뒤이어 午後六時軍官學校의官邸에蔣介石을訪問하야 北伐以來八年만으로 劇的握手를 交換하고 晩餐을가티한後 對日交戰全國防戰線統一에關해協議하엿다

廣東稅官吏轉勤命令

【廣東四日發同盟】廣東稅關勤務官吏 山角、吉田、兒玉、芝浦等四氏는 아무理由도 업시 突然히 南京의 指令이라고하고 上海、靑島、天津等에 轉勤 卽日赴任의命令을 바덧다 右는 抗日團體의 使嗾때문에 廣東稅關이 邦人壓迫에 나간것인데 邦人壓迫의 擧手는 俄然表面化하여젓다

英獨佛伊의提携로 平和體制確立?

英首相의伊首相에對한親書와 獨伊兩巨頭內面工作

【倫敦四日發同盟】英國首相네빌·챔벌린氏는 去卅日 뭇솔리니首相에 親書를보내여 英伊關係의 改善을 慫慂하야 歐洲外交界에 "센세이숀"을 이르켯는데 데이리·테레그라프紙 四日報道에 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右에압서數日前 히틀러總統에 同樣親書를寄하야 英國이 伊國을 攻擊하는境遇에는 獨逸은 伊國을 支援한다는意向을 宣明하기바란다는旨를 要請하엿다고傳하는데 右뭇솔리니首相의 親書에對하야 히틀러總統은 적어도 西班牙不干涉問題에關한 各國政府의 態度가 明白치안는사이에는 如斯한意向을宣明함은不得策이라고생각한다고回答하엿다 그리고 히틀러總統은 쳄벌린首相의 親書가뭇솔리니首相에 到着한아침 다시 뭇솔리니首相에보내여 獨逸政府는 英伊兩國政府의緊密한 接觸을歡迎한다는旨를 補足하엿다고 傳한다 一說에依하면 쳄벌린首相의 뭇솔리니首相에게보낸 親書는 右뭇솔리니首相의 히틀러總統에게보낸 親書에 刺戟되여 急遽히發送되엿다고 傳하나 諸般新發展을綜合하면 英佛兩國政府는 英獨佛伊四國新條約에依한 平和體制確立을企圖하야 이를爲하야 結局伊太利의 에디오피아合倂承認도 不得已하게될形勢에잇다고 解釋된다

羅馬官邊 親書問題를否定

【羅馬四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히틀러總統에게 親書로써對英政策에關하야 支持를 要請하엿다는 報道에關해 羅馬官邊은 이를全面的으로 否定하고 四日午後次와如한 意向을暗示하엿다 所謂伯林、羅馬樞軸은 順調로운進展을 하고잇는 此時에 무엇때문에 如斯한 非常手段을 取할必要가 잇는가 所謂親書交換問題는 全혀新聞의 捏造記事에 不過하다

獨出動軍艦 西班牙로부터撤還

【伯林四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軍潛水艦의獨逸巡洋艦 라이프치히號襲擊事件을圍繞한 獨西兩國間의危機에際하야 六月二十三日 킬軍港을出發하야 西班牙近海에出動待機中이든 獨逸戰艦아드미랄·그라프슈페ー號는四日巡洋艦부름베르크號及 第四水雷隊를 다리고 西班牙近海를出發하야 킬港을向하야 歸還途上에잇다는旨를 公表되엿다

抗日指導者 鄒魯南京着

【南京四日發同盟】南支의 抗日運動最高指導者인 中山大學校長鄒魯는 香港廣東間을 往復하며 頻頻히 民衆抗日意識을 煽動하고잇든바 近近出帆하는 엠프레스·어브·자판號로 舊十九路軍軍長蔡廷楷와함께 北上하야 南京으로 오게되엿다 蔣介石及北上中의 李宗仁等과 會見하고 南支抗日問題에 對하야 協議할것이라고 觀測된다

衆議院에展開된 蘇中合作抗日論

東代議士콤인테른活動指摘 首相外相態度冷靜

【日蘇通信】數日前의 衆議院豫算委員會에서 北支事變과 蘇聯邦의 關聯問題가 各委員에 依하야 銳敏하게 提起되여서 特히 政友會의 東委員이 콤인테른及 中國共産黨의 再檢討를 하엿는데 時節이 時節인만큼 여러가지 意味에서 各方面의 注目하는바되엿다 東委員의 質問에 對하야 廣田外務大臣이 應答의 正面에 섯섯는데 右質疑應答의 大要는 左와 如하다

▲東委員=最近 支那에 콤인테른의 介在問題가 問題視되여잇다는것을 近衛首相이 本會議의 說明에서 指摘하엿는데 이는重大한事態이다 特히最近支那의抗日運動은 그根底가 極히깁다 卽 콤인테른과支那共産黨과 蔣介石과의 合作政制이라고하여도조타 共産黨과 國民政府와의 妥協은 昨年에成立되얏다 其第一階段으로서 內戰은 一切停止하라는것을 條件으로하야 軍事委員會의 周恩來란者가 西安과 南京을屢屢히往復하야 支那를 完全한共和國으로할것 參謀本部를 만드러 共産黨도이에 加入할것 徹底的으로對日抗戰을 할것 쏘비엣政府는 解消하나 軍隊는特別革命軍으로서 現在占領하고잇는 根據地를 特別革命區域으로하고實權을保有할것 此外에經濟問題로서는 南京政府를 國防政府로서 全國의各派를包容하고 但親日系는絶對로排擊할것 産業、工業、貿易을擴充하야 日本政府를 排擊할것 世界各國中에서 支那의 對日態度에同情하는 國家와同盟을締結할것 沿岸에는抗日軍政大學을設立하야 全國으로부터 一千名의 男女學生에 抗日指導精神敎育을施하고 日本의中心勢力과支那의侵略的危機에對하야 敢然蹶起하라 이것이 卽蔣介石과콤인테른과의 第一段協定이다 從來日支關係는 同種文化라던가或은 彼我提携를하라 或은 東亞의使命인 平和安寧을 維持하라는等은 졔상우의 常套語로서支那를誤解하고 自省시킴은 거의不可能하다

▲近衛首相=支那에對하야 反省을求함은 庸事이라고하나 余는 모든手法을 다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廣田外相=只今말한報告는밧지 안헛다 現在支那政府의 動向을보면 相當히 콤인테른關係의勢力이 支配하고잇는듯하다 그러나 只今말한것이 事實인지그與否如何?또어느程度의聯絡을取하고잇는지 그것은 아

會期延長說消滅

政府의諒解運動奏效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의 北支事變特別稅法案委員會는 四日本會議散會後 即時 開會되여 委員長 理事를 互選하고 賀屋藏相으로부터 提案理由의 說明이 잇슨後 散會하엿는데 五日은午前中開會 勝正憲(民政)松村謙三(民政)矢野庄太郞(民政)小笠原三九郞(政友)等 諸氏를 爲始하야 第一議員俱樂部、社大其他 小會派로부터 質問이 잇슬터이다 그래 五日中에는 質問을끗코 六日午前中에 採決하야 同日午後一時부터 열리는 本會議에 緊急上程、可決한後 貴族院으로送付케될터이다 또貴族院은 同日午後本會議를열고 右法案이 衆議院으로부터 送付되는것을 기달리여 緊急히 上程하야 委員附託으로하고 即時審議에 着手하야 會期中에 成立시키기로되엿다 如斯히하야 政府의 貴衆兩院에 對한猛烈한 諒解運動은 奏功하야 會期延長說은 消滅되여 特別議會는 五億圓을 超過하는 事變費 一億圓을 突破하는 增稅를即時 可決하고會期를 終了하게되엿다

追加豫算計數整理 今日午前中完成

午後臨時閣議서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北支事變費第二次追加分으로서 四日閣議에서 決定된 今年度第四號追加豫算四億一千萬圓에 關하야는 大藏省에서 計數整理를 急히한結果 大體五日午前中에 完成케되엿슴으로 政府는 同日院內에 臨時閣議를열고 正式으로 決定한뒤에 右豫算에 伴한 公債發行에 關한 法律案과함께 即時 衆議院에 提出키로 하엿다

八面鋒

◇平壤府營電氣를 西鮮合同電氣會社에 넘기기爲하야 評價中이라고。

◇評價의高下가 平壤府民에게 주는影響도 크려니와 統制와 獨占이同義語인가。

◇民營事業이라도 公營事業으로 옴기라는것이 近來의趨勢어든、

◇統制의美名下에 이미公營이안된事業을 다시私營에 넘김은 무슨까닭。

◇똑가튼例로는 京城電氣의府營問題가 어룽어룽하는 동안에 私營繼續으로 落着된것。

◇묵은이야기를 되푸리할必要는업스나 오죽바라노니 民利가 犧牲되지안케하소。

平津間列車開通

【天津四日發同盟】天津北平地方의 治安確保와 兩地間의 列車運行은 漸次回復되고잇는中이다 四日午前八時半事變後最初의列車가天津發北平으로向하엿다

【天津四日發同盟】四日부터 各國租界는 警備兵도 平常과가트며 萬國橋의 通過도 許可되여 支那市街의 交通도 日佛兩當局發行의 通行證을 所持하고잇스면 自由通行을 許可하게되엿슴으로 天津의 交通도 顯著히 改善되엿다

人事·集會

▲竹內俊平氏(農林局農村振興課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本多武夫氏(農林局林政課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米、新主力艦 二隻建造計畫

【華盛頓四日發同盟】米國政府는 海軍無條約時代에對處하기爲하야 一九三七年度에잇서 三萬五千噸級主力艦二隻의 建造를 開始하엿는데 海軍作戰部長리ー提督은 四日新聞記者團에 對하야 米國海軍은 一九三八年度에는 다시 新主力艦二隻을 建造할 計畫이라는 旨를發表하고左와如히述하엿다

海軍은次期議會에 對하야新主力艦二隻及 輕巡洋艦二隻의 建造費를 要求할 方針이다 新規主力艦은 艦齡超過艦의 代艦을目的으로하야 舊倫敦條約의制限까지 建造하려고 함에不過하다 現在使用하는主力艦七隻은艦齡을 超過하엿다 海軍으로서는 舊倫敦條約에 規定된主力艦保有의 最大限十五隻까지近代的新艦을 建造하야 代艦補充을 行할方針이다 新巡洋艦에 關하야서도 가튼方針을取한다고한다

001561

事態惡化하면 臨時議會를再開

現在追加豫算으로는不足하다

北支事變特別稅法案委員會에서 杉山陸相答辯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의 北支事變特別稅法案委員會는 五日午前十時廿六分開會

勝正憲氏(民政) 追加豫算總計五億數千萬圓의使途를 明示하기바란다

賀屋藏相 外務省所管은 在留民撤退保護及 電報料金等에要하는經費이다 陸海軍費는 事態에應할 用兵作戰費이요 大藏省所管은 徵稅費公債費等이다

勝氏 政府는 國民의納稅能力이 어느程度라고 생각하는가 또 第二의增稅는 어느때에行할터인가

藏相 國民의租稅力은 平時와戰時와 달르므로 어느程度增稅할수잇슬는지 事態에應하야 생각할밧게업다 이以上增稅를더할터인가안할터인가에 對하야도亦是갓다 따라서 時局의 推移經濟界의 情勢에 應하야制定할밧게 다른 方法은업스므로 今日第二段의 增稅가잇는가업는가 말할수업다

板谷順助氏(政友) 事件費財源은 一時公債支辦에 依하고恒久的整理와 根本的調整을함이 適當하지안흔가

藏相 今回의一部增稅와 恒久的稅制整理와는 따로떼여노코생각하야야 한다 그러나 今回의 增稅에 對하야 負擔의 均衡은 充分히考慮한셈이다

中島彌團次氏(民政) 陸軍事件費의 內容如何 다음 通常議會까지 今日의追加豫算으로 充足시킬수잇것는가 海軍費는 第三國에對한 用意를包含하엿는가

杉山陸相 中央軍이北上하면 我軍이 이대로의態勢를 保持할수잇슬지 疑問인바 中央軍이挑戰하면 充分히膺懲할수잇도록 萬全의 準備에努力한다 今日로서는 이豫算으로 充分하다고생각한다 事態가惡化하는境遇에는 이豫算으로서는不足함으로 臨時議會를 奏請하야야 한다

米內海相 海軍으로서는 第三國에對한 何等準備도하지안헛다

矢野庄太郞氏(民政) 軍需工業의 高配會社에對하야 다시 增徵하여야 할것아닌가

藏相 高配會社의 重課에對하야는 硏究하여보련다

矢野氏 五分利、四分半利高率公債를 借替할생각은 업는가

藏相 借替할意志는 잇스나 早急히 實行한다고는 定할수는업다

이리하야 正午休憩하엿다

白系露人多數 滿洲國에就職!

人種平等、福祉增進을理由로

蘇領事館 攪亂宣傳에背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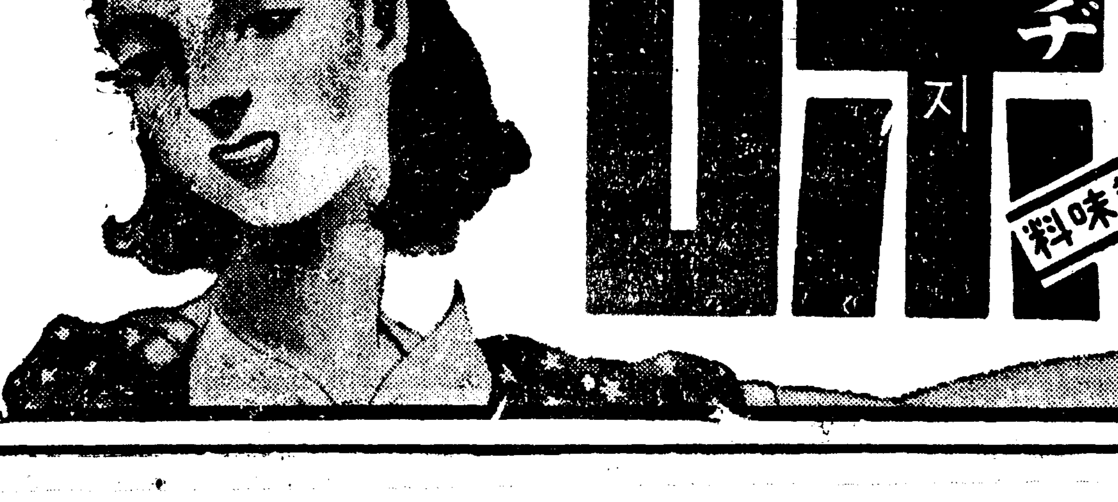
【日蘇通信】"콤인테른"의 在滿白系露人의 攪亂工作은 駐哈蘇領事館을 中心으로 巧妙하고 또執拗하게 繼續하야 滿洲에잇는 白系露人은 結局그生業을빼앗기고 窮迫에 陷入할것이라고 宣傳되여잇는데 이에對해 滿洲國은 人種의 別이업시平等으로 그安寧福祉의 增强에努力하고잇서 요전에도 白系露人事務局의손을거처 四十四名이나되는 白系露人이大量的으로 就職되엿다

貿易緊急統制法 滿國서一年延長

【新京四日發同盟】昨年日本의對滿洲通商擁護法發動에 呼應하야 施行된 滿洲國貿易緊急統制法은 來八月十五日로서 期間이滿了됨으로 政府에서는 다시 一年을存續하기로決定하고 公布될터이다 그리고 滿洲國에서는 同法適用品目인 羊毛 小麥 小麥粉 米等四種의 制限이 國內農畜産業의 助成發達에 寄與하는바 큼에鑑하야 今後情勢에即應하기爲하야 다시若干品目을 追加할方針이라 觀測된다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食料品部販賣
大阪市北區宗是町一

旭味
アサヒ
아사히
アジ
아지
純結晶調味料



料理에한숫갈
不味解消

有名百貨店·食料品店·酒店에잇슴

鮮內一手發賣元
室素肥料販賣株式會社
京城·平壤·群山·釜山·淸津

平北水害意外深刻 死者百五十九名
家屋의流失倒壞三千五百戶
個中에甚한北鎭朔州의慘狀

금번 평북의수해는 실로 수십년래에 처음되는 대홍수로그 피해는 막대한데 오일오전까지의 보고에의하야 경무국경무과에서 작성한 통계에의하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일백오십구명 부상자 삼십칠명 행방불명 구명등 합계 이백오건의 다수에달하고

▲가옥의피해는 문허진것 사백이십구호 반문허진것삼백팔십이호 류실된것 이천칠백칠십사호 침수오천팔백칠십호등합계구천사백사십오건의 다수이다 그중에서도 피해가 심한곳은 북진(北鎭)의 사망자륙십사명 삭주(朔州)에사망자팔십이명등이고 가옥의피해는 신의주(新義州)와룡암포(龍岩浦)가 가장심하다 이에 따라 평북일대의 곤궁은 그극에 달하엿슬것으로 짐작할수잇다

水害狀況報告集計八月五日午前中

署別	人被害 死者	負傷	行衛不明	家屋의被害 倒潰	半潰	流失	浸水
新義州署	一	—	—	二〇三	二〇二	二四	二、二四一
鐵山署	—	—	—	—	五	—	一二
北鎭署	六四	—	一	—	一六	三一九	二五〇
昌城署	—	—	—	一三三	—	—	一〇
義州署	三	一七	七	—	一四	全潰含四六	七八九
朔州署	八二	二〇	—	五〇	三〇	—	—
泰川署	一	—	—	一六	—	二	七八
龜城署	一	—	一	四	三六	—	三六
熙川署	一	—	—	—	—	—	二八
前川署	五	—	—	—	—	五	一一
龍岩浦署	一	—	—	一三	八九	一、八八七	一、八八七
碧潼署	—	—	—	—	—	六一	三〇八
江界署	—	—	—	—	—	八	二三八
合計	一五九	三七	九	四一九	三八二	二、七七四	五、八七〇

滿浦線도不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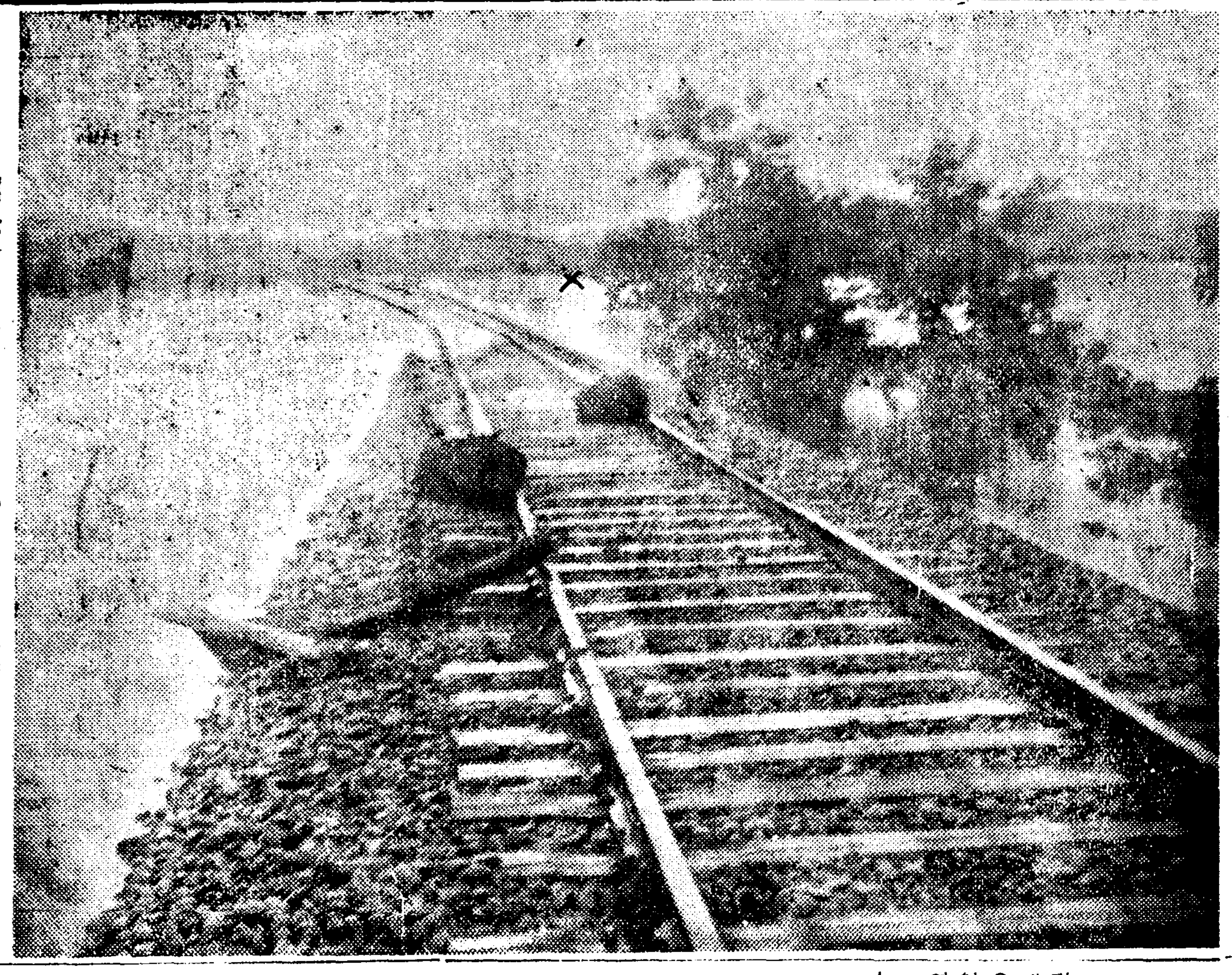
사일오전아홉시오십분에 만포선(滿浦線)리만(梨滿)설송(雪松)사이에 언덕약이백립방미돌이문허저서 기차가 불통하게되엿는데 그날정오쯤에 복구될예정이엿든바 또다시비가만히 오기때문에 그부근의 언덕 약이백립방미돌이 또문허젓다 오일오전여섯시에 복구될 예정이엿든바 오일오전네시쯤에 그부근에서또 언덕 일백오십미돌이 문허젓스므로 오일오후다섯시쯤에나 복구될듯하다한다 이때문에 각렬차는 현장에는 도보련락으로되도라 운전하는중이라한다

朔州郡大舘市는 空前의大洪水
全市街가江底로沒入

【龜城支局電報】 연일폭주하는비로인하야 하천이범람하고 산이허무러저서 삭주군(朔州郡)의남서면(南西面)、외남면(外南面)、량산면(兩山面)、수풍면(水豐面) 등네면에는 공전의 대홍수로 피해가막대한모양으로 교통과통신이 두절되여 상세한것은 알수업스나 오일아침까지 판명된인명사상은 팔십여명에달하며 가옥류실이 일백오십삼호 도괴한가옥이 칠십삼호 반괴한것이오십칠호나되는데 그중에도 외남면대관(大舘)시는 천년이래로안전지대라고 부르든곳이지만 순식간에 수국화하야 가옥류실사십호 파괴이십호 반괴십호 사상자아홉명중다섯명은 경상자이다 곡류륙백석과 상품은약삼십만원 가격의것을 류실하고 시가지는 강으로 변하야 시가지의 형적조차 차즐수업다 사백여명의피난민은 산에올라가 비명을 노는 그참상은 눈물업시는 볼수업다 이에 동리에 사는유지정세웅(鄭世雄)씨가 백미사십석을 리재민에게 배급하야 구제중인데 상세한것은 교통이 두절되여조사키어려운형편이다

枇峴、良策間鐵道 僅僅推進開通
人夫數百名晝夜兼行復舊工事
五日夜는機關車開通

지난일일이래로 경의선의 수해불통장소인 비현(枇峴)백마(白馬)사이의 삼교천(三橋川)복구공사는 철도국에서 신의주보선원(保線員)의 총동원과 인부수백명을 사용하야 주야겸행으로진행한결과 사일오후아홉시에 겨우다리우의 추진(推進)으로써객차와 화차의개통을 보게되엿다 일기가 더다시 나쁘지안흐면 오일밤에는 기관차를 통하게할예정으로 인부를증원하야 방금작업중이라한다



濁流에 잠긴 白馬、石下間鐵道

國防獻金還至
愛國機慶北號
十萬圓드려獻納手續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유지들의 바친돈으로 우선 십만원을 드려 애국비행기 한대를 바치겟다고상룡(上瀧)지사대리로 오일에리(李)산업과장이 조선군사령부를 차저가서 그수속을 마치엿다한다

▲사일 부내종로서에 들어온 국방헌금— ▲一金三十一圓九十錢也 鐵路

高射重輕機關銃 各一臺式
粟田氏가獻納

부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구번지사는 속전홍(粟田弘)씨는오일에 돈오천원으로써고사중기관총(高射重機關銃)고사경기관총(高射輕機關銃) 각한대식을 헌납하엿다한다。

삼일종로서에들어온 국방헌금

▲一金五十圓也 雲泥町七九 洪宇柱氏 ▲一金百圓也 朝鮮生命保險會社專務元悳常氏 ▲一金五百圓也 益善町三四 李秉直氏 ▲一金二百圓也 光化門通一三八 李炫九氏 ▲一金二十圓也 樓上町六三 京城勞働會

各國代表가講演
文化敎育事業의國際親善貢獻에對하야
四日世界敎育會議第二總會

【東京支局特電】 동경에열리게된 세계교육대회 제이총회는 사일호놀루루모로박사의장사회로 오후여덟시부터 동대(東大)안전강당(安田講堂)에서 열렷다 국제문화진흥회 리사장 포산(蒲山)박사의『국제문화협회의사업에대하야』라는 제목의강연이잇슨후 독일、인도、미국、등각대표들로부터 문화교육사업의 국제친선에 관한공헌에대하야 차래차래의강연이잇서 만장한각국대표들에게 기픈감명을주고오후열시이날의총회를마첫다(사진은총회회장)

夜市商人組合 ▲一金百圓也 西大門町二丁目七의二七 尹邦鉉氏 ▲一金百圓也 同所 金明淑氏 ▲一金二十二圓五十錢也 內需町二四一 海雲精舍道場內海印婦人會一同 ▲一金五十圓也 樂園町一一六 宋榮昆氏 ▲一金百圓也 靑松町四六의七 鄭完圭氏

▲오일 시내서대문서로 가지고온 국방헌금은 다음과갓다 ▲一金一千圓也 市內北阿峴町一의二一 塚本泰士氏 ▲一金五十錢也 市內中林町一四九의三一 加明普校生 金福童

軍事後援聯盟 寄附募集許可
十二月末日까지募金

조선중앙군사후원련맹(中央軍事後援聯盟)에서는 출정장병의 가족부조사업에쓰고자 기부금삼십만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야그동안 총독에게 기부금모집허가를신청중이든바 지난삼십일허가가 나와즘으로 즉시각도지사와 각가맹단체에 통첩하야 모집에착수하얏는데 모집기간은오는십이월 말일까지라고한다

醫博梁淳泰氏 錦衣還鄉
米洲留學六年間

【開城】 여러가지로 미□선 의학계에 혜성과가티나타난 의학계의 거성! 씨는 개성이나흔 양순태(梁淳泰)(三□)씨로 일즉이 경성제일고보(京城第一高普)를거처 산구고등학교리과(山口高等學校理科)를맛치고『의술로써 천분을 발휘하야 조선민족을 구해보것다』하는결심에서 그후일천구백이십구년도미(渡米)하야 "버지니아"의과대학(醫科大學)에 학적을두고 이래륙년간 졸업하기까지 가지가지쓰저린 로동으로 고학을하야 오늘날 영예로운M D의 의학박사(醫學博士)라학위를 엇게되바 그후 씨는 이년간이나 소속 병원에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야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지난팔월삼일 금의로환고향하게 되것이다 그런데씨로말하면 동대학 의학부교수회에제출한 특별론문이 여러번"파쓰"되여 남다른 자격을갓게된바 지방적으로 영업제한이잇는북미(北米)에서사십삼주(四十三州)에 어듸든지 영업권을 자유로 행사할수잇는 특권을 획득케되여 씨는금후조선의학계에도기대는 자못클것이라본다

(사진은 량순태씨)

芳香 イナシン 一吹必殺

煙草의配給은 自動車로代用

철도의수송(輸送)제한으로 당분간 화물을 제한케되때문에 연초배급(煙草配給)이 잘되지안으리라하야 지방에서는 매점(買占)하는폐단이 생기기쉬움으로 전매국에서는 화차대신 화물자동차를이용하야 배급하고 잇슴으로 이제는아모 불안이업다한다

公衆用電送寫眞 明年度부터設置
新聞寫眞、寫眞手配、官用書類等
廣範圍로利用方針

보도전선의첨병(尖兵)으로 사진전송의 시설이 명년봄부터조선서도 데뷰하게되여 조선으로부터 내지로 내지로부터 조선으로 맹렬보도 기타리용을 마음대로 하게되엿다 이번북지사변을 기회로 동맹통신사외에일본대표적신문사가 휴대용전송사진기를 설치하야 조혼성적을엇고잇는것을보아 체신국에서는 이번에 드듸여일반공용의 사진망을 설치하기로하야 명년도예산에 약십만원을 게상하야 경성과내지사이에 전송발수신기(發受信機)를설치케되엿다 이와동시에 취급규측과 료금기타규정을 립안코저 관계법규를참조하야 급히안을 꾸미는중인데 실시되는경우에는 신문사진원고는 물론이려니와 관서용전송류와맛중대범인의 사진수배등급한것을 전송(電送)으로 취급하야 사용범위를 될수잇는대로 널리하야 리용식히도록할 예정이다 또조선안의전송은 경성、부산、청진(淸津)또는함흥(咸興)세곳에 우선기게를 고정식혀당분간관용으로서 활약케하고 점차주요도시에 미치도록할터이다

天氣豫報

概況 南支那에드러간颱風은北西에進行하야 今朝에는 漢口의北部約百키로에잇스나 그勢力은 弱하야 七四二미리쯤되고 더욱北進하고잇다 高氣壓은 本邦의南東海上으로부터 日本海를거처 半島에퍼지고잇다 蒙古方面도 氣壓이 조금놉고『오호츠크』海는 氣壓이 낫다 滿洲及西北朝鮮國境部는 비가오고 半島의中部以北은 흐리고 南朝鮮은개엿다 東支那海도는內地는晴天이나 東北地方以北은 흐린다 그뒤에 颱風이北東에 轉向하야도 滿洲와西北朝鮮에 影響이잇슬뿐으로 其他는 關係업다

豫報 今夜와明日은晴 熱

昨日最高 三三度 同最低 二六度 今日正午 三二度一

스포ー츠欄

東洋拳鬪會 松濤園서合宿練習

東洋拳鬪會에서는 今五日午後十一時三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同會師範黃乙秀氏引率下에 部員二十餘名이 元山松濤園에向하야 約二週間豫定으로 夏季合宿練習을行할터이라한다

都市野球第五日戰績

大每主催의 第十一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第五日、八幡製鐵對大連實業戰은 五日午後零時二分부터 神宮球場에서 八幡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四對三으로 八幡軍이 快勝하야 準決勝에 드러갓다

大連	〇〇〇二〇〇〇〇一
八幡	〇一〇〇二〇〇〇一

4…3

大東民友會서 聲明書를發表

시내 중학정(中學町)에 잇는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본부에서는 지난칠일부로 북지사변에대하야 다음과가튼 성명을 발표하엿다

聲明

去七月七日支那軍隊의 不法行爲에依하야 惹起된 北支事變은 許多한排日行爲中에서도 顯著한侮日的排日行爲라하겟스니 그後의支那側의 不信과 나날이 甚하야가는 全面的挑戰態度는 이點을더욱明白히하고 남음이잇다。

今日日本이 北支에서 維持하고잇는特殊地位는 半世紀에갓가운歲月을通하야 幾度의 事變을經驗하고 幾億의 物資와 幾十萬의生靈을犧牲하야서 獲成한바權益으로서 決코一日成立으로된것이아니다。 그런데支那는 此血과名譽의結晶으로된北支의 權益協定을侵犯하며 抗日侮日을 國策으로하야써 東洋의平和를擾亂하야 마지안는狂暴를敢行하니 엇지日本政府와 日本國民의 견되여 默過할바이랴。於是乎 帝國은 上下一心 最後的重大決意로써 事變의 解決에當케되는 今日의 客觀的及 主觀的諸條件의 使然한바로서 日復日危機를 增大하고잇는 世界政局의不安과 緊迫한 東亞의情勢가日本으로하야금 今次事變을 契機삼아 對支國策의 全面的根本的解決을決意케한것에不外한것이다

惟컨 日本의 國家的興隆發展은 從來의 國際勢力均衡上 重大變化를 齎來하얏스니 長久한동안 世界各國民의 頭上에 君臨하야잇든바 白人의 個人主義的 資本主義的 文明은 過般의歐洲大戰에 依하야 그根本的缺陷과破綻을 暴露하얏스며 最近滿洲國의 勃興과 日本의 國際聯盟의脫退에依하야 東亞에잇서서의 歐米人의帝國主義的侵略體系는 드듸여 그根本的破綻을보기에이르럿다 如斯히하야 日本이日露戰役以來東亞諸民族에呼訴하든바 東亞人의東亞의理想은 着着그實現의步를내여딋고잇다。即今日의日本은 肇國三千年來의傳統에鑑하야 東亞文明의眞髓를지여잇고 東亞各民族生活의 精神的根據를이루어가지고잇는바 皇道精神을喚起하야 新日本建設의途程은 滂湃하야 全國에漲溢하고 內政上에도 躍進的改革과擴充을보게되얏스며 一面內鮮滿一體의經綸은急速度로써具現되야여기에東亞諸民族의共同提携와共存共榮의基礎는確立하기에이르럿다

於是乎 日本이東亞의安定勢力으로서 平和確保의 任務를遂行하기爲하야는 먼저 間斷업시東亞를威脅하는外敵을防禦함과함께 膨脹하는人口와剩剩으로 充溢하는國力發展의新天地를開拓하야經濟資源의獲得과生産力의 擴充에依하야 內鮮滿을 一體로한民衆生活의向上充實을 企圖치안흐면 아니될것이다。

이는實로日本大陸政策의 精神的國防的政治的經濟的根據의 正當性이니 八紘一宇東亞를 一家로한共同의安寧福利를 念願하는바인즉 支那로서만약참으로四百餘州의和平統一을企圖하며 外侮를막아國民運動의完成을冀求할진뎌 欣然히日本과提携하야 그共同한使命에邁進하지며 써神州光復東亞人의東亞를 實現하는 覺悟가잇지안흐면아니된다。

그럼에도不拘하고 支那는아직도歐米依存의 傳統的迷夢에서깨여지못하고 소위以夷制夷的手段에依하야 東亞自身의問題에 즐겨歐米列國의干涉을 誘致함으로써 一貫하야 갓갓내 支那는歐米의半殖民地的地位에서 解脫하지못하고 支那民衆은歐米資本의獸能的搾取를모르는 猛烈한搾取에내여맷겨젓스며 支那民衆의 自由와幸福은 白人에依하야 完全히蹂躪되여잇스다 今日日本이 膺懲코저하는것은 彼等頑冥不義의抗日徒輩로서 是等無自覺한指導階의罪惡에依하야支那四億의民民이救出되기를바라마지안는바이다

今次의事變을 通하야볼지라도 支那政府는 歐米의干涉을誘致코저百方努力하고잇다 그러나日本은問題가東亞에關하는限 斷乎歐米人의容喙를不許할것은勿論 歐米라한들 東亞의實情에盲目이난限 支那政府의弄奸에빠저 소아위干涉的輕率을 敢行하리라고는 생각키어려운바이다 설사如斯한事態가誘發된다할지라도 日本의東亞에서의 地位及東亞의現狀에 何等不利한變化가 生할과가튼일은 斷定코잇슬수업슬것을 確信하는바이다。

皇軍은 이미出動하얏다 이것을 契機로 日本은 支那의覺醒을 促進지안흐면 아니된다。慢性化한 支那政權者의 抗日態度는 尋常茶飯의 消極的方法으로는 到底히 그根絶을 期키어려운바이잇스니 東亞將來의 安定과 平和를爲하야 善良한 支那民衆의 將來의 幸福을 爲하야 徹底히 此를 膺懲함은 東亞의安定勢力으로서의 東洋平和의確保者로서의 東亞의 指導者로서의 日本의 當然한 任務이며使命이 아니면 아니된다。

今次事變에 對한 積極的全面的 解決의 過程은 同時에 日本의 東亞大陸政策完成의 過程이며 東亞諸民族의 緊繫와親善을 一層强化하는 過程이다。朝鮮은 바야흐로 完全하게 日本帝國의 東亞 安定勢力의 核心을 構成 해잇스며 東洋 平和의 確保者로서의 東亞의 指導者로서의 一翼的任務를 分擔해가지고잇슴으로써 吾人은 此際 支那의 徹底的膺懲과 事變의 積極的 全面的 解決을 主張하야 마지안는바이나 이契機는 곳朝鮮民衆이 東亞의 優秀民族으로서 그使命과 任務를 遂行할 時機이며意氣와氣慨를나타낼때이다

朝鮮民衆의 利害休戚과 興亡盛衰는 實로 日本全體의 그것에 嚴密하게 合體되여잇나니 엇지 晏如히 對岸火視할것이냐。비록 朝鮮民衆에게는 擔銃의 義務는 아직 업다 할지라도 銃後에 잇는 國民으로서의 義務는 平等하게 가지고 잇다。

於是乎! 吾人은 國家的全體意識에基하야 國民的感奮과 同胞的純情을、沸騰식히지안흐면아니된다 그리고 事變克服의結果가 日本에勝利를 齎來하도록 時에隨하고 分에應한國民的支援과同胞的協力을바치지안흐면 아니되다 如斯한覺悟와 義務의 遂行은곳 朝鮮民衆의 向上과 幸福을 意味하는것이니 吾人이玆에 朝鮮民衆의 國民的支援과 同胞的協力을 부르짓는所以는 內鮮人利害休戚의 必然的共通性을認識함과同時에 大局의 見地에서 共同의 使命을自覺한데基하야當然히要求될바 國民的純情의發露에잇는것이니 이리해서야만비로소國民的意氣와 犧牲的精神을昂揚식힐수잇기때문이다。

我等의口號

天誅로서 支那의覺醒을促하라!

事變渦中의 同胞를保護하라!

擧國一致 同胞的協力을捧하라! 抗日의支那를亡하고東亞를害毒한다! 日本은東亞의指導者요 侵略者가아니다!支那를膺懲하라 그리고東亞를白人의侵略에서保護하라!

▲銃後의義務

流言蜚語를擊退하라!

外諜을防止撲滅하라!

入營將兵과 그家族을慰問하라

我等의鄕土를護하라 空中을護하라!

昭和十二年七月三十日

大東民友會

御中元 天下一品 萬 キッコーマン醬油 킷코ー만 贈答은家庭本位로 物品은品質本位로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12-8-13

品質第一等 桃屋의桃의罐詰 生겻보다맛잇는 白桃、黃桃 各食料品店에잇소 東京 桃屋

名藥案內 兒孩가업스신분께 子宮病이잇스신분 調血劑이라는新發明秘方藥을服用하십시오 說明書請求大郞進呈 京城鍾路四丁目宗廟電車停留所南側 日光製藥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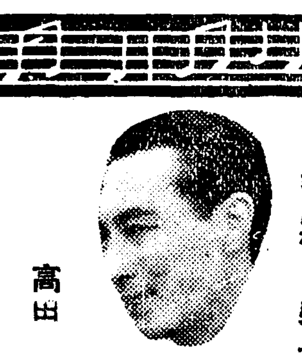
朝報案內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男子二十五歲以上의外務社員을招聘함 鮮內各地駐在可、希望者는 履歷書를보내면面會日通知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一 朝鮮生命保險相互會社 第一生命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一三一四番

女子 タイピスト一名採用 他社에勤務經驗者高女卒業程度二十五歲以下 要履歷書郵送 面會日通知 京城府茶屋町七六 三益合名會社 電本②四五四五

採用 醫校卒業 十八歲까지의身體健康한男子數名을至急採用함 但市內에서通勤할수잇는者에限함 南大門通二丁目 植村製藥所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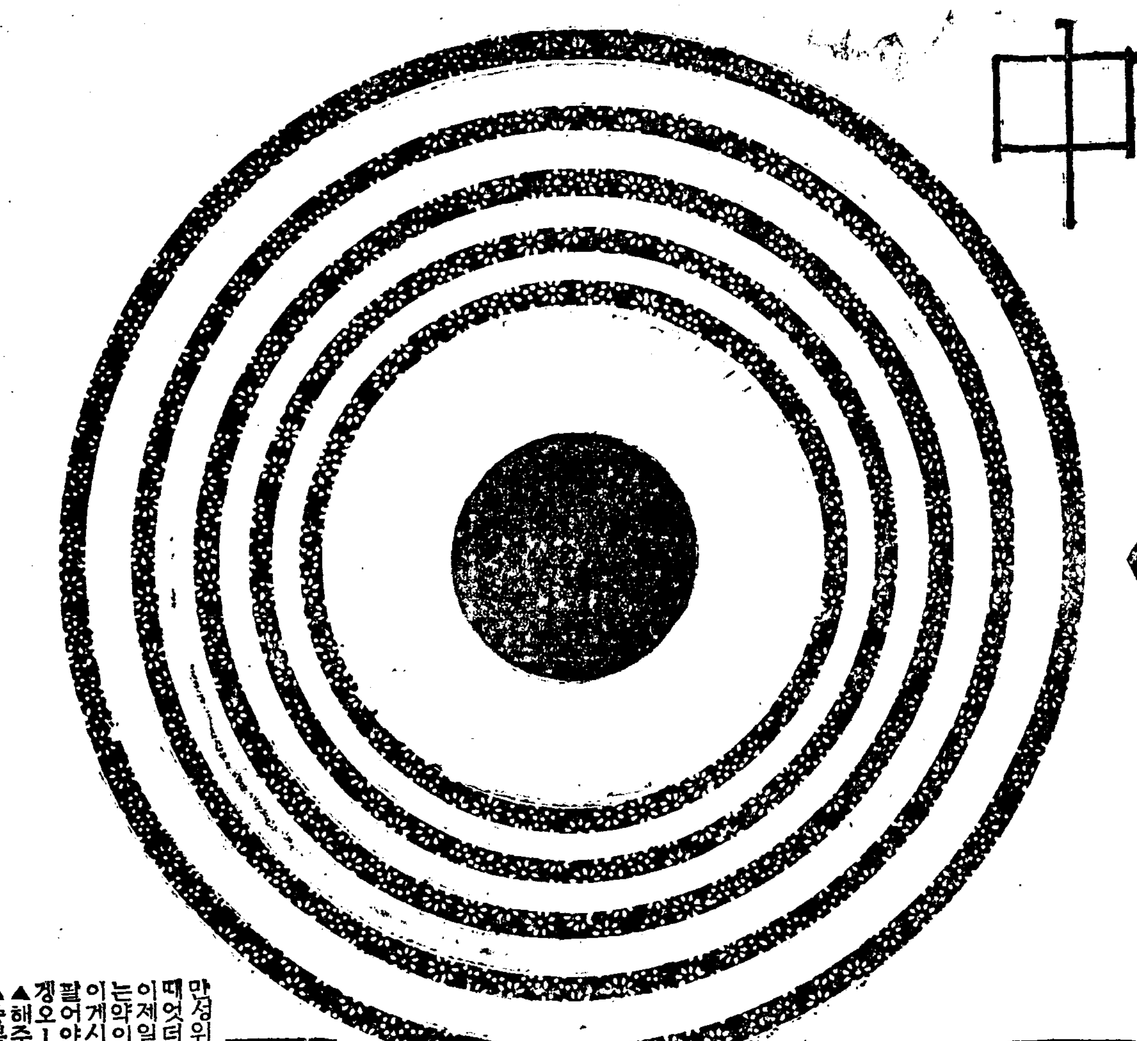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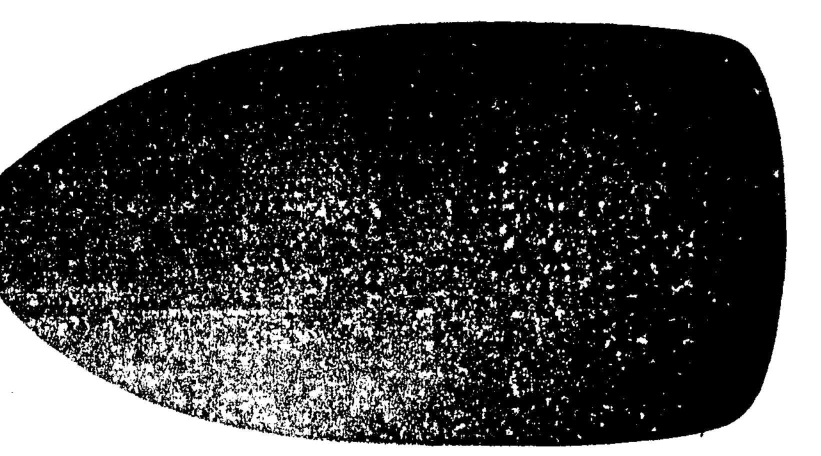
靜寂なる牧場を背景に前科もつ男の惱みを描く巨篇 南風の丘 高田稔・江戸川蘭子・大川平八郎・高峰秀子主演 監督・松井稔・P・C・L・超特作 東寶映畫部提供

6日封切 限りなき旅 ケイ・フランシス ウイリアム・ボウエル主演 ワーナー・ナショナル超特作 テイ・ガーネット監督 冷房完備 大人五十錢 學生小人三十錢 若 劇

口紅と ほゝ紅 엽술연지와 뺨연지 巴里製라도 못따름니다 日本에서 어런조흔 연지가생겨서는! ¥·40 金鶴 キンツル 당신의얼골이形麗케되는 言치못할만코 艶 뺨연지 ¥·30·50 눈을살이고이마를살여ー まゆ墨 ¥·35 本舖 株式會社野村詰店

快巨彈的中





체중 속병 특효약

겡오ー

鎭痛 補胃 消化 蘇生

체증속병엔 겡오ー가제일

이세상에만병이라충하는만큼병이만흔중누구나 대개걸녀가지고낫지못하야 무한한 곤난과고통을 밧고잇는것은제일에체증이다。이병은걸니기는쉬우나 낫기는대단히어렵다。남녀노소업시 다ー 체증이라는병을 한번식알어보나이에대하야는 누구나 다ー 예사로안다。중하게생각지안코 등한하게하는 사람이만타 그러나그것은대단히잘못생각하는것이다 만병이 다체증에서생긴다고단정하여도될만큼 우리의신체중심은 위장에잇다 위장이 건강한사람은 신체가건강하야 자연히 정신도건강하다 그러나위장이약한사람은 따라서신체도약하며또정신도약하다。신체가불건강하면 만사가 다ー안된다。위장이건강하든분도 우연히일조에약하야저서 음식을먹지못하고먹어도맛이업고 한수가락만먹어도잘체하고만이못먹고배가압푸고 설사하고가슴이아푸고 오목가슴이 쓰리고아푸고 명치가매달니고네리지안코 배를눌너도아푸고 무슨뭉치가이리갓다저리갓다하고 치밀고가슴이울넝울넝하고 숨이차고 생목이올나오고 식곤증이나고 수족이차고기운이업고 방구가만코꿀꿀하고배가 부글부글하고 신트림이나고 입에서냄새가나고 물만먹어도너머오고 곱변、버큼변도누고 팔진미를먹어도 소화가안되어그대로설사하고 너머오니몸이건강할리가잇나 그러니 건강하든신체도 수일내로쇠약하야 안색이창백하고 신경쇠약이되고심장이약하고 폐장이약하여지니 미구에세상을 버리게될것이오 그럭저럭한약으로 눌러근근히 숙이나먹고 그날그날겨우넹기니 일평생을 비관으로 보낼수박게업다。남은건강한 신체를가지고 충분이활동하야 출세양명하여 사회에서 존경을밧는대 신체가불건강한사람은 제아무리영웅호걸의긔개가잇고 천하를동일할만한 포부와 경륜이잇드라도 제일활동할 기운이업스니 병석에서 한탄이나할수박게업는것이다 그러니우리는 일각이라도 몸에병을업새야한다 위장만건강하면 폐병도나으니 우리는 제일위장을건강케하여야한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니병이잇고는 전세게재산이 다ー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업고산해팔진미가눈압헤태산갓치싸여잇서도 먹고십지안으니 위장병자의일평생의욕망은무엇보담도 빨니위장병이 나어서 구미잇서음식잘먹고 잘소화하야건강한정신과 건강한육체로 활발스럽게 남과갓치활동을하고십흔것박게는 더바라는것이 업스리라。그러면 이위장병은 과연낫지못할것인가?아니다 결코그러치안타과학이발달되고극도로문화가진보된이십세기에위장병을못곳친다고하여서는말이되나 체에푸린비행기는 세게를일주하고 나팔레온은 말을타고아루프스를넘지안엇나 이와갓치 의학도발달되엇스니 무엇이든지고치라고 힘을쓰면된다 결국은 그환자의 성의와 노력하나에잇다

입때까지 속치못한 그럭저럭한 일시적 효과의갑싸고 만흔약 즉효력은좀듯거나전연히안듯거나 그럭치안으면 인이백이는중독하는 약을연복하고미약한수사나 약으로백방으로 별별치료를 다하여야 나을도리가업다 그런것가지고난 백년가야낫지안코 도로혀 위장이열버지고 일평생회생치못하고만다。그런대독일박사는최근에소、도야지、닭、의발통을 연구하다가참신기한 초급속최고귀한 위장신약을 발견하엿다。즉、우、돈 은여하한더러운음식을먹어도잘소화하고 체하지안코 닭은모래와 동철가루도 능히소화하며 체하야죽은일이업스니 그중에참전인미견(前人未見)의세포가 잇는것을발견하엿다한다。거기다화학적작용으로 우리인간의 위장을건강하게하며 퍽퍽소화를식히며 여하한완고악성의 고질만성 체증과속병 위장이라도초급속적으로 최단시간에뿌럭이가 빠저근본적으로 치료되고 절대로재발안하는대 무엇보담도 수만명의 실험자중에천이면천만이면만다ー씨슨드시 깨끗하게치료하엿는대 제일신통한것은 사십년된적으로수개월내지 수년을치료하야도 안되여사ー기만기다리고 신음중이든중병자가 겡오ー단지일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아재생의 깁붐을맛이는분이잇스며 십년、이십년된 만성 위장병이야 수일내로대효를 보앗다。그럼으로그만한 자신이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백방으로치료하고 천만가지약을다써보아도 완치못하야 골난하는분은 최후에결사적으로겡오ー를 일각이라도빨니 쓰시와인생의 최대행복인 건강미를맛보시오 이약은 남녀노소업시유아간기에도 신효하니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 우리의위생상 건강상제일필요함니다 급체에한포토사곽난에한포 배압푸고설사하는대한포만 먹으면당장에젓거젓거떠러집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요▼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적、괴、위괴양、구미업는대신경쇠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경련、가슴아리、위하수증、기타조선말노주체、담체、냉체、식체、회적、혈적、괴、등무슨 체증이든지 단시간에뉩니다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곳 주문하시요 약은 가루약인대 하루에 세번 식후에 온수나 냉수에먹음니다

약가

완고증 (頑固用) 오원
중증특제 (重症用特製) 삼원
경증용 (輕症用) 이원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 사십오전 약가를 우표 삼전 십전자리로 보내도 좃슴니다

약효를사실로증명하는 이감사장을보시요절대의자신을가지고권고합니다

인생 人生의最大幸福인 건강미 健康美를맛보시오 인생은 건강이 제일입니다 무병이 장자오병두고는영웅렬사라도 못견됩니다 병이라는 것은 안숙는 병이 업다 손톱밋헤 비접만드러도 그것이 원인이 되여큰 병이되여 죽게된다하니 하물며 몸에 큰병이 잇스면 일시라도 속히 치료 하여야 합니다 신성당푸로다ー는 효력이 속하고 절대 책임잇는 약이오니 무서운 병을 속히 고치시와 인생의제일행복인건강미를어드시오

약을써보시고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짐니다

물가가점점폭등하여가니지금곳안쓰시면약갑이몃배나올릅니다가정상비약으로도곡필요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신축백옥양관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一〇七七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자미잇는문제?

만성위장병、즉구체나급체가잇서서 약을써야할때엇더한약을써야 당장에나을가?생각하야이것이제일조타는약이무엇일가만일『겡오ー』는이상가는약이잇서서 그약명과 내용을가르처주시는분이게시면 충분히사례하겟슴니다 (가장조흔약을팔어야영업이흥왕하는법임으로)

겡오ー에대한고마운말슴의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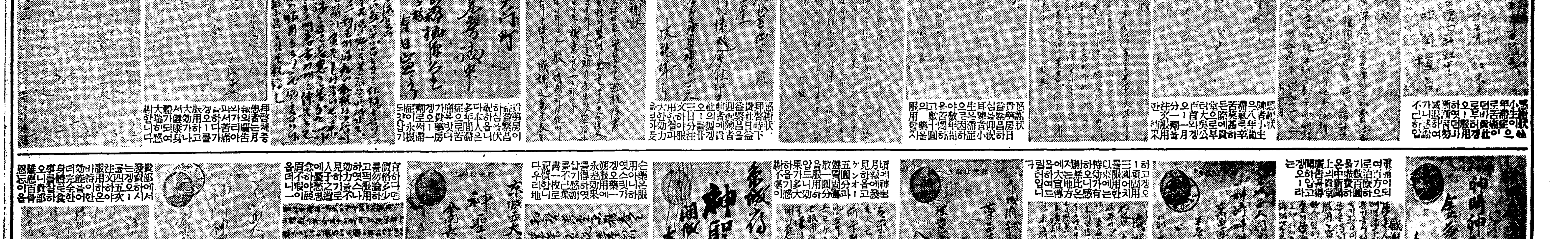
▲해주군장곡면창말삼신산불사약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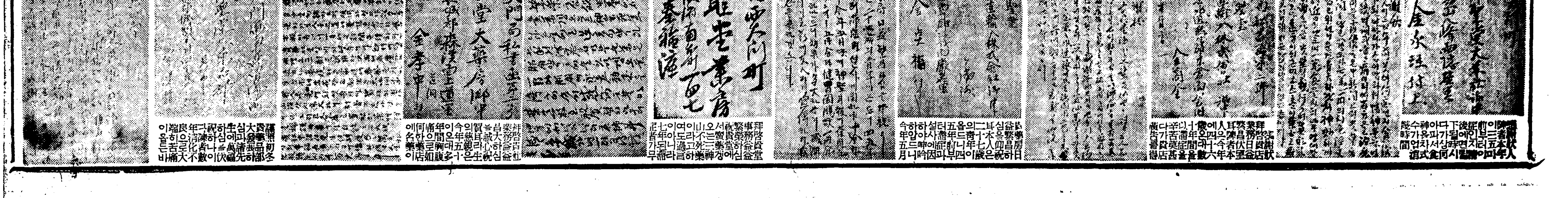
▲충북진천김경중씨는『겡오ー』가업섯스면나는칠팔년전에벌서죽엇슬것입니다 그리하야지금은죽을다할때마다준비합니다

▲경기도강화군안정균씨는사십년된체증이운권청천운운

▲경성시내 김수길씨는나는예번죽을것을『겡오ー』로사러나고사러나고하엿소등등부지기수다

001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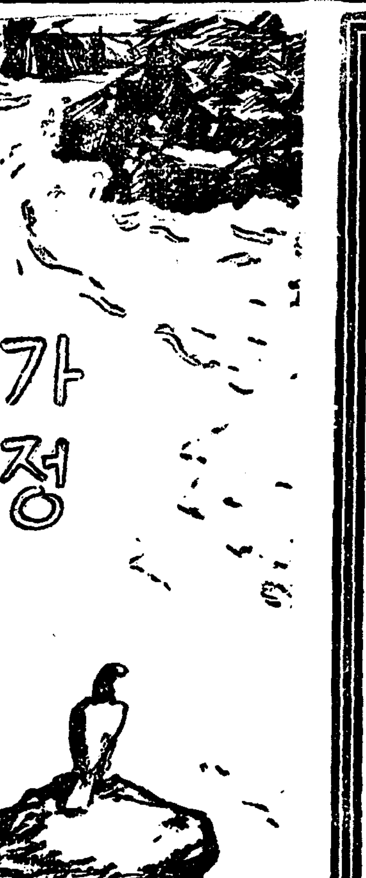


우리차지

개고리집잔처

개고리집 잔치에게 가제 손님만 청햇는데 가제가와서
「여보 나는게의사촌이요。이가위좀보」
「네그러쿤요。어서드러갑쇼」
그다음에는 새우가와서
「여보나는 가제의끄레동생이오」
「개고리네 어쩐지만 히닮으섯구료、어서드러갑쇼」
(글쓴사람 고문순)

가정



옷과이부자리는 자주거풍식히자
소독도되고상하지를안어

습기가만흔 요사이에 조금만 방심을 하다가는 외복이고 기구고 모두 못 쓰게됩니다。호리지 안코 이 나려쪼이는 날을 가려서 거풍을시켜 두어야만됩니다。

◇이부자리 더러운 껍데기운 나 안은뜨더 빨고 솜은 다시 틀고 전부 고치십시요。도틀뭉이 뛰어 구멍이 낫거나 떨어진 것은 빨기 전에 전부 꿰어 매십시요。그러치 안흔 것은 줄에 걸치어버체 쪼이는데 다섯시가 되기 이전에 거더 드려야 합니다。그러케 거더 드렷다가는 그 이튼날 다시 널고 또거더 드리엇다가는 그 이튼날 다시 널어서 한 사흘벼츨조입니다。다섯시이후는 다시습기가 차서 널어 말린데 소용업시 됩니다。사흘쯤 그러케 널고 맨나종에는 자가튼것으로 톡톡 몬지를 털어서 개넛습니다。베개ㅅ속은 뜨더서 끄내 가지고 말립니다。첨대에 까는 집표는 거치장스러워서 뜻지안코 그대로말리는수밖게 업습니다。

◇의복 가장 볏잘드는방을 가려서 몬저 깨끗이 치우고 바람ㅅ결을 딸아 줄을 매고 옷을 축넙니다。그역시 네시반 내지 다섯시가 지나거든 문을 죄 다닷다가 그이튼날 다시 열어노하 말립니다。만열 소낙비가튼 것어 올듯하거든 곳 문을 다더 두어야하지요 또 몬지가 날아들어오거나 버레가튼것이 부를찌모르니까 날마다 문을 다들때는 무슨막대기로 톡톡 떨어야만 되고요。

◇세간 세간가튼것은 버체 쪼접조여면 모도뒤틀리고 뜨고 하게 될것이라 통풍 잘 되는 곳을골라서 햇볏은 피하고 노호십시요。그리고 설합가튼 것은 잡아빼노서 그역시 거풍을시킵시요。버들고리란 본래 섬기게 틈이 벌어서 몬지가들어 가기도쉽고 습기가차기도 쉽니다。그러므로 무엇을 담을 때는 반듯이 선문지가튼 것을 깔고 하는 것이 조습니다。

여름의파리녀선

업서도될 매니큐어셋트
게을지만안흐면고흔소톱된다

손톱도 화장을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여성의 상식이지만—은 이매니큐어를 한다든지 에나멜을 칠한다든지 하는 위낙 시간이 만히걸리어 누구나 될일이아닙니다。비싼 매니큐어세트를 가지지안코도간단히 손톱화장을하는방법도 업지안하니 그것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一、몬저 손톱을 깍습니다。살을 하반푼쯤 남겨노코 동고스름하게 깍습니다。한업자로나 뾰족하게 깍거 노호면 더일층 보기 실습니다。그중에서 손마디짧은이가 한일자로 깍거나 손마디가긴이가 뾰족하게 깍거서는 더길고 더 짧러보입니다。

二、그다음 세숫대야에 더운물을 노코 손을담그고 고운솔에 비누칠을해서 손톱미틀 씻습니다。그솔은잇솔헌것을 이용해도조흐나단지 그 솔로만흔때가 다 지는것이 아닙니다。그러니까귀개깟가튼것으로 끼인 때를 깨끗이 파낸뒤 솔질을 하는것이 더 조습니다。

三、그다음 마른 수건으로전부 물기를 씻어 내고나 사나 모직헌겁으로손톱을문지릅니다。그러면 손톱이반들반들 해지며 윤기가 나서 에나멜을 칠한것보담 자연스럽습니다。

四、손매디가 험상스러운분은 콜드크림을 바르고 꾸준하게 맛사지를합니다。또손까락어나 팔뚝에 못이 백인분도 콜드크림을 바르고맛사지를 하고 화장수를 바르고분을톡톡처서 바릅니다

련근반찬맨들때

우방자나 련근가튼것은 한참두고 울려 내지 안 하면 떨버서 반찬을 해먹기 끈란할뿐어 아니라 억지로 웅직을 맨든대ㅅ자 빗갈이 시커매서 보기부러도 숭업게 됩니다。그러니까 만일에 얼른울려 내려거든 퉁이나 큰주발가튼데 물을 붓고 소금과 초를타서 잘 저은뒤 우방자나 련근이나 썬 것을 집어너코 뜨지 안토록 꼭 눌러서는 두껑을 덥퍼서 한 어십분 두엇다가 건지면 맛이나 빗갈이나 아조조하집니다

인끼보다는 공적
업스면못살소금
위선"여름에는짜게자시요"

소금은 우리들 생활에 업서서 안될 것은 물론이지오만 은 밥을 짓거나 두부나 여채를 데칠 때도 소금을 조금 집어 너흐면 맛도 행결 낫고 잘상하지 안코 비나 어쑤시개도 쓰기전 뜨거운물에 담것다가 끄내면 보통보담 두곱절은 오래갑니다 또 유리그릇은 소금물에너코 바짝끄리엇다가 천천 시키어 가지고 끄내서 써야 오래 쓰고 개미는 그 드나드는 구멍에 다가 소금을 뿌려 두어야고 만다시는 덤비어 들지를 안습니다。그런데 사람의 몸에도는 혈액어나 땀이나오줌에는 한 리틀에팔그람쯤 염분(鹽分)이 잇서야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수잇습니다 만일 그분량보담 염분이 조금이라도 적으면는 위장기라에고만병이 생기고 더우이여름에는 줄곳 땀이 철철흘러나립니다。그러타고 목이 말라서 사이다、아이스크림、냉차가티 단것만 마시다가는점점 더 염분을 일허버리게됩니다。그러니까 그런 때는조금 짜게 자시는수밧게 더는 약이 업습니다。그러나너무 짜게 먹어도 목이 마르고 물이 만히 먹히고 땀과 오줌이 늘어서 도리어 염분을 일허 버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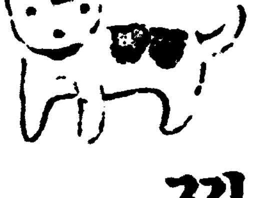
몸보하는 여름料理
뻐터를발라먹는 숫병아리구운것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암놈이 맛잇다하지만 닭만은 숫병아리가 제일맛잇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 무게가 넘을락말락되는 숫병아리를잡되 배를 조금만 갈르고 (화채어버리면 안됩니다)내장을 끄냅니다。그런뒤에는 똥구녁쪽을 약간벌리고서 내장과 머리 빼께끄시씨손것을 트려넛습니다。거기에다 또다마네기、남참나무버섯、푸른콩、죽순가튼 조화하는채소를채처서 깨끄시씻서 소금과후추를 약간뿌려 역시아래로드려넛습니다。그리고는 닭의온몸둥이에소금을뿌려(생선구이보다만히)손바닥으로 문지른뒤에다 후추가루를뿌립니다。

기름철판에 돼지기름을 듬뿍녹이고 그우에닭을 집어너어사오십분가량굽습니다。굽는동안에 적어도예닐곱번가량은 철판에녹은기름을 작구 둘러 씨워서 위가 따뜻하게 굿지안토록해야합니다 닭이 검노라케잘 거든 물에서내여 노코 온몸에뻐—터를발라서 먹습니다

이닭한마리가네 사람분입니다다리 둘 날개쪽지둘이 러케네쪽지에 때어살라다채소를깔고가장자리에로마토、사과、귤、종류의 실과를비어서 적당하게 색채를 띄운데에담어 내놋습니다 여기에도 오이지를껴서 먹으면 맛이그럴듯할뿐더러 맥주안주로 그럴듯합니다

長篇小說 찔레꼿 【94】
金末峰 作 / 金熊超 畫



영혼의시장(五)

아침일즉이 눈이떠지자 세면소로나온 정순은 전등이켜진채 아직도 어둠이 손구거리는 창밖을내다보면서 수도물을 틀어 물을뿌엿다。

손끄리 쩌르르하고 따갑도록 물은차다。

연지비츠로 물어진 … 말끄럼이 드려다보든정순은 자기가 이집으로 드러오든때는 오히려 떳떳미지근한 이름이시절이 바꾸임을따라 어느새 이처럼 차젓술까 하고 그는고개를끄덕엿다。

『민수씨의 맘과가티 모든것은 차간다』

이런생각을하면서 세수를마치고 자기방으로 도라온정순은 어두스레한 처마아래로 히끗히끗 흰눈이 날르는것이 눈에띄엿다。크리스마스도 아프로 한달밧게 남지안어 겨울은벌써 그무자비한날개를 대지우에 펴기시작한 모양이다。

그는 책상아래 도라안저 크림을 손바닥에 떠 노호면서도 오늘다시 침모박씨에게 졸릴일을 생각하고 눈쌀을 찌프렷다 침모 가말하는 그만석군의 청혼을 던지시 드러올뜻하게 대답을 해보인것은 벌써한달전—민수가 단한번이라도 정애나정구에게 자기와 정순은 남매가 아니라 약혼한사이라는말을 설명해주지안는것을 생각하자 그는도리킬수업는일인줄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민수가 원망스러워젓다。

『과연남자란 다이러케 무정할

그는 그러코 좌우간 아침만마치고 나면 그지긋지긋하게 졸라대는 침모마누라가 또다시어 방으로 차저 올것이다。여간 『그만둘레야요 시집가거 실혀요』 쫌이로는 심해(深海)의 문어발가리 끈기잇게 달려붓는 노파를퇴치할수는 도저히 업는것이다。

이런일저런일을 생각하고 가루분을목덜미에 뿌리는 정순의맘은 눈오는 오늘날세와가티 우울하엿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침부터걱정을하고잇든 침모마누라는 외종일눈에도 보이안헛다。

저녁전등이 켜지고 그리고주방에서 저녁이다되엿다는 기별이곳을듯한때 정순의방에 낫서른젊은여자손님이 나타낫다。정순치마에 자주빗저고리를입은 그여자손님은

「안선생님이시라죠?」

하고 방그래우스며 방으로 뛰어드려섯다

날신한키에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젊은아래 살결이 약간표른듯하나 그외상원한 코ㅅ날과영채잇는눈이 결단코 미웁게 보이지는안헛다。

「네—어서오서세요?」

하고 정순도 이새로보는 손님에게 마주우서보이고 자리를권하엿다。

「이댁 침모가 저어머니야요호호」

「네—그러서요 참 따님이게시단말은 드럿습니다만 인제초면입니다요」

「어머니는 가끔집에 오시면 노상 안선생님 말슴이조 어쩌면 그러케 남에게 칭찬을받고사세요 참부러워요」

하고 여자는 조그마한입을 손으로가리면서 수집은듯이 웃는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듯 정순의얼굴이 화끈붉어질때다

「안선생님!」

하고 침모가드러왓다。

「너 안선생님 좀찬찬히봐와라 얼마나 착한양반인지」

하고 자기딸을 도라보고는

「이게 내딸인데요 좀잘가르켜주서요 그저 전부터 안선생님을 뵈옵겟다구 졸라대는것을 오늘저녁에는 할수업시데리고왓조」

정순은 이수다스러운침모모녀의 변설에 번가라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도하고 너무나 노골적인 칭찬에 얼굴도붉히고。

「이건도 무슨재변야」

정순은 저윽이 시장함을늣끼 한여메안저잇노라니

「얘 내방으로가자 안선생님저녁진지 잡수시게」

하고 영자를 눈짓하엿다

「네—그럼 선생님 진지잡수선뒤에 또오겟서요」

하고 자리에서 어리선다

「가치 저녁지를 좀잡숩시다」

하고 정순이 영자에게 인사를 하엿스나

「지금막 먹고오는길애요」

하고 사양을한다。

정순이가 식당으로간뒤 침묘의 방문이 사르르열리고 그리고사면을살피면서 영자가 살작 정순의 방으로 드러갓다。

그는 책상테—블위를 휘—휘—둘러보다가 책상설합을 열리니 크림통을 꺼냇다。

「한것해야 래—트크림야」

종알거리면서 두어번 냄새를 마터보고 그담에 얼른 가루분을 열어보더니

「파피리오、군」

하고 고개를끄덕이고 다른설합을열어 이리저리 뒤지기시작하얏다。별다른화장품이 눈에띠어지 안는것이 이상하여젓는지

「연지도업구 눈섭먹도업구 무엇으로 화장을햇길래 그러케 고울까?」

그는 무슨마술항아리나 열어본듯이 신기스러운듯이 고개를기웃거리고는 사뿐 자리에서 이러섯다。

문으로 나오려다가 테—블우에노인 비누곽이 눈에띠어자그는 손빨리 뚜경을열고 속을검사하엿다。

비누는 절반쯤달아저서 아무런 상표도 남아잇지 안는때문에 그는 몃번이나 몃번이나냄새만맛고 그리고 살그머니 복도로나왓다。

침모의딸 영자! 독자제씨는 일직 침모박씨가 정순이와 어야기할때에 고등녀학교 삼학변까지 다니다가 어느종은학교학생과 연애를하고 운운하든 설명을 아직도기억하고 개실줄밋는다。

그영자가 정순이와가티 스물두살난—지금은 오라범대에게눈치밥을 먹고잇다는그가 무슨까닭으로 정순의 화장품을 도적해서 검사하엿는지 우리는、여겨서 어간으로써 가장 추하고 무섭고 그리고 비표아진한장면을 구경하게되는것이다。

第一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十七日至廿六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五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二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十圓
特別褒賞(朝鮮日報社長賞)

▲入選作品中에서 左記二級의入賞作品을決定하야 正賞으로賞狀을授與하는外에 또 所定의副賞이잇음
百圓 各部各科綜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認하는作品 一點에對해서 本社社長이授與함

申請及搬入—場所는 本社事業部 期日은 自九月十日 至十日間搬入할일
出品規定—本社所定의申請書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과함께前記搬入場所로提出할것이며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 作品의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明記할일 (規定에違反된것은不受理)

◇主催 朝鮮日報社

朝光八月號發賣中
定價四十錢

暴風的人氣不日來絕版
■朝光八月號는 山에서 바다에서
■農村에서 漁村에서 家庭에서
■職場에서 宏壯한 人氣입니다

怪奇座談會 車相瓚·庾秋岡·申鼎言·外諸氏

▲자미잇는小說 무시무시한小說
實益잇는小說 興味잇는小說 ▲

短篇小說 漁火……韓仁澤
短篇小說 거문고……鄭飛石
短篇小說 卒居……金東里
長篇小說 無風地帶……咸大勳
長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探偵小說 寶石……金裕貞

避暑地禮讚
文人들의禮讚記
■松田賞讚記……李軒求
■朱乙의地峽……李孝石
■桐華寺……白信愛
■海印寺……張德祚
■避暑日記……白鐵
■東海岸紀行……盧子泳
■孫基禎體格……吳漢泳 崔性章

○太平洋上의感激……安昌浩
○最後一線……文一平
○生活의効力……李克魯
○悲壯一瞬間……尹致昊
○苦難의一教訓……李瑄根

尊　受……李殷相
知性의敗北……金午星
英吉利音樂……金管
李鍾萬氏의人物……一記者
中國學校의午前……靑葉生
물과音樂……任東赫
巴里外交의六年……李鍾燁

□三陟燈臺를보고……春城
□쏘聯의今後……洪陽明
□今後의米價……金翰容
□朝鮮金融統制……李健赫

■名弓이야기 ■珍奇俱樂部 ■各界消息 ■中國野鷄 ■世界情報 ■笑話 ■各學校夏休計劃圖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六七八

作者의 觀察과 題材의 空虛性

(七)(八)(月)(創)(作)(評)——(四)

安懷南

韓仁澤氏의『漁火』는 여러가지點으로보아 氏의前作品에 比較하여서는 만히 進步된것입니다。그러나 成功한 作品은 아니올시다。왜그러냐하면

作 品의 核心이 밝혀지지안햇고 따라서 가장 貴重한 알맹이가 빠저버린 까닭입니다。積極的인 意慾으로 社會의 한生產的인部面을 取材로하엿고 이것에對한 作者의 描破하려는態度가 처음부터 線이 굵다랏케 나타낫것은 반가운일이엇습니다 그러나 作者의 意慾이 旺盛하고 大端한데 견주어 作品의要素는 너무나 貧弱하고 疎漏하엿읍니다。말하자면 材料의 모든 準備가 不足하엿다고 하겟습니다。于先 取材의對象을 作者는 現實的으로그것을 把握치못하고 觀念的으로 생각해내엿세요。勿論 作者는 어느 程度의 모델이나 힌트에서 出發하엿겟지마는 그것이 即 언덕거리가 업는것이엿다고 認定합니다。取材의 對像에대한 觀察이 充分하지못하엿고 그貧弱한 觀察을 作品에까지 針小棒大한것입니다。그러니 룸이버려질수밧게 터 잇습니까。아니이作品에 잇서서는 룸이 버려진데는 업고始終이

如 一하게 잘짜여읍니다。그러나그대신前言한바와가티 고만 알맹이가 빠저버린것입니다。漁民들이 銀魚共同販賣所를 組織하게 되는 過程이 第一 重要한 대목 인대 그前後의 事實이 모두 漠然하고 模糊하게되여버리지 안햇읍니까。漁民들은 아무 걷잡만한 鬪爭도업시 太平하게 그들의組合을 갓게되엿는대 먼저보여준 作者의 氣勢와는 딴판이올시다。떡은 안나오고 싱겁게 김치국만 마신세음입니다。프로벨은 나무 한개를 맨들기위하야 森林을 하나 探伐하는 巨人이라고『돈마』가 말하엿다 합니다마는 우리의作家들은 아직 이러케 偉大한巨人노릇을 안해도좃습니다。그러나 于先 반반한 널판만은準備한 후에 匣이든櫃이든 맨들생각을가저야 할것입니다。作品의材料와 作家의努力에對하야 생각해볼때 우리는널판의 完全한 準備가업시 아무리 作家가 自己의 思考力과 空想心을 가지고題材를 살리라고 努力하여도 그것은 眞正한作品에의

補 强行動이라고 할수는업는것을 깨닷게 됩니다。韓仁澤氏의『漁火』가 그것의 조흔 例示입니다마는 鄭飛石 氏의『거문고』亦是 이러한 말슴을 드릴 作品입니다。한妓生이 孤獨한남어지 盲人과함께 結婚을 하엿다가 愛慾의滿足을 느끼다음에는盲人에게對한 厭症이 생기고 그것을 눈치채인 相對편이 作別을하매 이번에는 다시前과가든 孤獨을 가지게 되는것이該作의 內容인바 作者는 또한이 微妙한 孤獨의性質을 主題로取扱한것 갓습니다。그러나 읽는者로하여금 조금도 實感을 못갓게한것은 遺憾이엇스며 그原因은 우의說明대로 題材의 空虛性에 잇다고봅니다。또『거문고』作者의 作品에의努力은『漁火』作者의 것에 멀리不及하엿습니다。『漁火』에 잇서서는 알맹이가 빠젓지마는『거문고』에잇서서 主題는 明確하게 보엿스나 곳곳에 너무만히 틈이 벌어저잇습니다。前者는 人形의우에다 衣服을 端正하게 입히여

虛 飾해 노흔것을 聯想케하고 後者는茂盛한닙사귀들이 凋落한뒤의 앙상한나무가지 겨울의樹木을 聯想케 합니다。『윤수』라는人物이 그리여저잇지 못하다는것과『청매』의 孤獨하는것과 戀愛하는것의 各各 心理過程이 不自然하다는것은 말할나위도업고 假令 妓生이 盲人의홀편과 더부러 結婚을하는事業하나만을 노코 보더라도 그것은 現實의 世界에서나 小說의現實에서나다함께 稀貴하고어려운 일일것이어늘 作者는 조금도 그러케 보고잇지를 안는것갓습니다。아무리 珍奇한 이야기일지라도 世上에는 그것이 한개 逸話나 例外的事件으로容易하게 存在할수도 잇는것이나 小說속에서는 現實界의 몃倍로 그것의條件이 具備하고 進展이 必然的이며 描寫가 正確해야만 讀者는 비로소 首肯하게되는것이 아닙니까。『거문고』속의 모든것은 그냥 손쉽게 이야기만해

東京通信 (四)

◇箱根遊◇

崔載瑞

第九信

元箱根에서내다보는 蘆之湖는 말할수업시 아름답습니다 맑고 고요한물과 거기에비친 는 섬과 숲의그림자 그우를 오고가는배와 선창에선 女子들의多彩한 衣모양——『日本의風景을보지안코는 日本畫를理解할수업소 纖細한線과 淡淡한色彩는 日本의自然에서우러난것이요。日本藝術에 深刻한것을 要求하는것은 要求하는 그사람의잘못이요』하는 金君의말을 나는順坦이 首肯할수잇섯습니다。

點心을먹은뒤 벌가티드러선 杉並木머드로 自動車를달려箱根町을지나니 벌서『箱根八里は馬でも越すが』하는 箱根峠입니다。古木이빗다한舊街道를지나 車가 갑파른山비탈을돌르기 始作하자원수의안개는 또다시展望을빼앗고맙니다。海拔三千尺우에 아스팔트를까라노흔 自動車專用道路에드러서자 안개는 더욱더욱甚하고 案內孃의說明은더욱더 신이업니다。아마도 그들에겐 안개가끼어는것쯤은 例事일것이고 눈을감어도 이一帶의風景이 훤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꿀먹은벙어리모양으로 案內孃의 [illegible] 치다보고안저잇섯습니다。거짓말이야 아니겟지만 咫尺을 분간할수업는 안개이니 그讚辭를 賞讚할배업서 여풀도라다보니 金君은 어느 틈에 잠이들어 海拔三千尺의꿈을 꾸고 잇는모양입니다。할 것이업스면 잠이들고마는 金君의肉體는 造物主의過分한寵愛를 바든것이아니면 아니되겟습니다。나는 車窓으로 몰려드려와 흐터지고남은 안개실마리가 바로아페 안즌 승객의머리털에 戱弄하고잇는것을 그칠줄 모르게 바라다보고 잇섯습니다。

一時間餘의 드라이브를하고 熱海에 나리니 꿈나라에 다녀온것갓습니다。눈아페 소스라선箱根山은 아직도 안개속에무처잇서 우리는 어디를 어떠케 도라나려왓는지 잠시동안 神仙에팔리여 天堂에갓다온感이엇습니다。

이리하야 우리들의 初行은 너무도 섭섭하게 끄려나고 마럿습니다。이제는 두사람이 東京과 西로 서로作別할것밧게는 남지안햇습니다。

아직도 汽車時間이 남엇기에 두사람은 熱海의 海岸散步를 하얏습니다。그러나 이 最後의 코-스만은 제대로에서 抹殺하고싶습니다。小說을 通하야 想像하든 이名勝地를 實際로와보니 [illegible] 합니까? [illegible] 海水浴脫衣 [illegible] 바데기……『貫一お宮の松』가울고잇습니다。

여기서 꿈을깨친 우리들은 熱海銀口를휘도라 茶店에서 잠간쉬기로하얏습니다。茶를 마시며 안고잇노라니까 부루-스의 레코-드소리가 별안간 끈허지드니 라디오·뉴-스가 들려옵니다。그것은 日支衝突과 政府의 方針을 放送하는 뉴-스엿습니다 房안은 금방에 조용하여지고 손님들은 嚴肅한 表情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우리고들잇습니다。香月中將이 [illegible] 北支에 赴任하야 [illegible] 는 말로써 뉴-스는 一旦 끈허젓습니다。우리들은 엇그제 東京을 떠날때 蘆溝橋附近에서 不祥事가 일어낫다는 報道는 알엇지만 그새에 事件이 이리도 迅速하게進展되엿슬는 몰랏섯습니다。우리들이 箱根山가운데서 夢遊하는 동안에 世上은 一變하고만것입니다。

나는 午後다섯時八分에 熱海에서 金君과 作別하고 緊張의 都市로도라왓습니다

× × ×

海中仙府耽羅國

—濟州의 異稱에 對한 愚見—

⑥ 李殷相

새벽도 세時 小群大、島를 다벗어나 배는 萬頃 滄波에떳 天을 미中은이 다달 西으로 넘어 올고 砂汀 한水 平線 도하 눕과 마주이어 羨歎한데, 나그네 물결소리에 지치고, 도스스로 재歎想에 부대기어 觀望者어와 작간 눈을 부치자 하엿더니、얼마아니하야 고동소리가 잣고、船窓이 밝기로、놀란듯이 일어나 甲板우으로 올라가니、아름답다 神秘하다 저漢拏山、저濟州島! 뉘가 여기 이가튼 絶海雲濤속에 한덩이의 땅을던저서 海中仙府를 만드섯나。三神舊國、九韓勝地가 저기런가 家家橘柚、處處雞鸞가 저기런가。

『너를 보려 내가왓노라』는 듯이 거룩에 넘치 손을들매 그도또한『나도여기서 기다렷노라』하며 주춧주춧 걸어나오는듯하다。

너무도 分明히 現實的이오 科學的인 現代人의 눈으로도 저것은 정녕히 神仙의宿宅으로만 보힐것이다。三山十洲를 지난날 이야기로만 들었것이냐、蓬萊瀛洲가난홈이매、옷깃俗事를 이저버리고 神仙의洞府를 차저오는것만갓다。어허 여가러閑暇하더냐 그러타내게 무슨일이 잇섯겟느냐 어허 그가러 괴로웟더냐 그러라 내게무슨安樂이 잇섯겟느냐。

絶海孤島를 바라보며 틈시 업시 섯노라니 一行中 數三同伴이 문득 내어깨를 치며『저濟州를 웨 耽羅라하엿는가』하고 뭇는다。그들에게對答한 나의愚見을 여기잡깐披瀝하리라。

濟州島의 名稱에 關하야는 諸書에 여러가지로 보이어잇다。

耽羅國이라는것은 濟州島의 異稱으로 가장 세상이 널리 아는者이어니와 그밧게 輿地勝覽에 耽毛羅(或云耽牟羅)東瀛洲라한것과 耽羅誌에 州胡國이라한것도잇고 또 北史에는 涉羅라하엿고 唐書에는 儋羅라하엿스며 韓文에는 耽浮羅라하엿고、宋史에는 乇羅라하엿는데 어는 耽羅誌에 적힌대로 乇羅의 訛인듯하거니와 如何間이와가티 그異稱이 만히보인다。

그런데 여기 이名稱에 對하야 가장 重要한 學說이라할 만한것은 耽羅誌의 記錄이다。『東國方言、島謂之剡、國謂之羅、耽、儋、涉三音、並與剡相類音、盖云島國也』

이說에 依하면 耽、涉、儋等은 모두다『섬』(島)이란말의 音譯字요、羅라고 한것은『나라』(國)란말의 音譯字이어서 섬나라 即島國이란뜻으로解釋하게된다。

그러면 耽毛羅、耽牟羅、耽浮羅等의 毛羅、牟羅、浮羅는 무엇이겟느냐。그것은 조금도 疑心할것업는『무라』即『村』이란말이라 생각한다。『무라』란것이「ムラ」(村)이지마는 元來에는 朝鮮語이엇던것이니 이는文獻이 證據하는배다。梁書에『新羅傳、待百濟而後通、其俗呼城曰健牟羅』라한것을보면 朝鮮의 古語에 都城을『健牟羅』(健은큰、大、健으로도쓰이엇음) 即『큰무라』라하엿던줄을 알것이다。『健』은『큰』의音譯字로『大』의뜻이오『牟羅』는『무라』의音譯字로『村』의 뜻임이 分明하거니와 그證左를 이곳濟州城의 古名에서 볼것이니、耽羅誌에 依하면 濟州城內를일즉이『大村』이라 하엿던 모양이다。

耽羅誌에 記錄된『三姓分占三徒、倣北斗形、築石爲而居之、故州城內有七星圖』이라한『大村』은 조곰도 어긋날것업는『큰무라』의漢字譯이라할것이다。

그러므로 이곳異稱인 耽牟羅 耽毛羅等의 牟羅、毛羅는『무라』어오 耽浮羅의浮羅도 牟羅、毛羅를 變轉시켜 海中存在를 表示하야 音義를 兼한『浮』字로써 代作해노한것일 다름이니、結局은『島村』이란뜻임에 틀림이업다。

어와가튼 이야기를 하는동안 배는 어느덧 港口안으로 들어와닷는다。埠頭에는 우리를 마중하려는 사람들이지 만호紳士들이 웅성거리며섯다。

(寫眞은 濟州島埠頭)

文學保健省

鍊金術

三色畫

얼마전에 李泰俊氏는 그의 文學談義中에서 作家는 여러사람의 要求에따라 이런것도쓰고 저런것도쓰는것이 보담은 첫째 제自身의 쓰고시픈것 다시말하면 제體質에맛는것은 써야한다는意味의말을한일이잇섯다。그러자 申南澈氏가 이말을 바더가지고 作家는제自身보담도 大衆을 위해 써야한다고反駁을 하니까李氏가 다시그反駁을反駁한일이잇섯는데 이것은남의論爭에 뽑느것이니까 내가 중뿔나게 是非를 말할것은못되나 李氏의 體質論은 내가解釋한바에依하면 作家란 반드시 大衆과는 吾不關焉의 態度로서 제마음 내키는대로만 쓰라는것이어니라 題材가 大衆性이잇고 時代性이잇다고해서 作家自身의 氣質이나 敎養이나 趣味에 맛지안는것을 억지로 無理를해서 쓰는것보담은 비록身邊事의 私小說일지라도 제 氣質과 敎養과 趣味에 맛는것을 無理업시써서 한篇이라도 어색하지안흔 作品을만드는것이 意味인듯하다。이러고보니 李氏의말은 文學을 이야기하는것이엿고 申氏의 反駁은 文學以前의 作家的態度를 말한것이니까 彼此에 다一理가잇기는하다。가령 李氏의말에 쫏는다면 作家가 제體質에맛지안는것을 아무리 쓰데야 그것은 未熟하고 生硬한 虛構이지 決코 圓熟無瑕한 文學作品이라고 볼수업는것은 事實이다。그러나 그러타고해서 오늘날과 가티 우리作家들이 何等의野心的인 作家的態度를 가지지안코 그저 身邊雜記의 小宇宙속에 安閑하게 지난다면 作家의 體質은 漸漸 低下해질것이아닌가? 壯丁의 體質이 부럽다고해서 自己의 弱體病魔들도 라보지안코 壯丁의 勞役을 하려는것도 無謀한 일이지마는 그러타고해서 나는 弱한몸이니 힘드는일은못하겟다 방안에 몬지나털고 재떠리나 씻는다면 그것도 그다지 반가운일은아니니까 쫏는 文學保健省이 어라도잇서서 作家의 體質을 좀더 向上시켯스면 제일조흘일이다。

門外漢의 手帖 (下)

—隨筆—

李陸史

밤을넘어서 午前두時나 되엿든대 밖가레서는 눈보래가 조금도 쉬지안코 나렷소、사람들은 차차 긴하품을 하다가는 제대로 팔을베고 자는이도잇고 또 그자는이의 다리를베고 자는사람도잇스며 나중에는『하이카라 상』과 나만이남어서 나는 이洞里의 서러운傳說을 듯는것이오『옛날에 이洞里와 건너마을이 편을갈러서 正初이면『줄댕기』가 始作되엿고 그때는 사람들이 수一百名式 모혀서 그중에도 젊은 사람들은 處女나 총각이 제각기 마음잇는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면서 永遠히 그子孫들은 繁昌하엿스니 이洞里를 지켜왓건마는 至今은 어쩐일인지 그사람들은 누가 오란말도 업고 가란말도 업건만은 다들 어데인지 한집식 두집식 洞里를떠나고 그럴때마다 젊은이들의 싹트기始作한 사랑은 그봄에 다가기도전에 덧업시 흘러가고 만다는말을 다마치지도 못하야 이사람은 창졸간에 미친듯이 울어저 흑흑 느껴가며 우는것이엿소。나는 이것을 웨우느냐 물어볼힘도업고 울지말라고 慰安을 줄수도 업섯스며다만 혼자 생각기를 너무도 또한憂傷한 未完成初戀의 殉情者로 구나하고 動靜을 살피노라니 이사람도 그냥잠이 들고먼데닭이 자즌홰치는 소리가들리며 눈보라치는지 밧가는 바람에 몸이부릇소。

나는 兩時間 남지안흔 이밤을 到底히 잘수는업섯소、내머리는 海底와가티 아득하고 내가슴은 雲母와가티 무거웟소。도라누을내야 도라누울수도 업스려니와 이떼사람들의 코고는소리는 검은屍體를 실은馬車의 수레바휘를 갈고가는듯하오、그럴수록방안의 靜寂은 무거워저서 자꾸만 地球의 中心으로 沈澱되는듯하엿소、나는 참다못하야 눈을감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려웟소。바로 그때엿소、누구인지 내머리맛에서 말하는 사람이잇섯소、그사람이 누구인지는 記憶할수 업스나 或은 저녁전에 담배가게에서본 農夫일는지도모르겟소 그가 나에게 한말은分明코『門안에 드러와서……』엿소。나는 여기서 눈을번쩍뜨고 가만히 생각해 보앗소。

『오! 그러타、나는 門外漢 이다』아무리하여도 人生의 門안에들어서지못할 나이라면 차라리永遠한 門外漢으로 이世上을 수박것핥듯시 지나갈일이지 그좁은門을 들어가려고 애를쓸必要가 어데잇겟소 門밧게서 살어가면 責任과 負擔도 가벼우려니와 그門안에 우리가 직혀야할 寶物이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門안에서 직힐때에 나혼자만 門밧게서 그모든것을 파수본다면 그것도 나의한가지 任務가아니겟소 그러타면 나는 달게

人生의 門外漢이 되겟소。

그래서 남들이모두 門안에서 보는世上을 나는門밧게서 보겟소 남들은 거피보는 世上을나는널리보면 또그만한 自得이잇슬것갓소。오늘은 高氣壓이어데잇는지 風速은 六十四미리오 이洞里를 떠나아무도 밟을대지 안흔 大雪原을 걸어가겟소、前人未到의 原始境을 가는느낌이오、누가나를 따라이길을 올사람이 잇슬른지?업서도 나는이길을 永遠히가겟소。』

×

나는이까지보고 위선이遺稿를 덥헛다、그리고 생각해보앗다 이것은 한사람이 人生의門안에 들어오지못하고 永遠히 걸어간記錄이다 오! 그러면 나도亦是 門外漢인가? 丁丑 七、二九

演奏와 批評

音樂批評에對한프라그멘트

③ 金管

산人間과 그산人間이 意識하고 소리를내는樂器(歌曲인경우는歌唱者에게統一된다)에依해서 作品(樂曲)이再現(再生)되는事情을가젓기때문에 音樂藝術은 獨特한것이라고 말하는理由가잇는것이다、그러므로 演奏家에따라서 解釋과技術、또는 樂器의個別的으로 相異하는性能의偏差는 前節에서말한바와가티 同一한作品에서도、無限히다른印象을 가질수잇게되고 이에서 音樂鑑賞에크나큰 봐리에-티(多樣化)를 가지게하는것이다。演奏家와樂器가 가지는 中間媒介的인 位置(環)로서의意義는『죽은狀態』에잇는原型으로서의作品(作曲)에附加되는 하나의『푸라스』고 또音樂美構成의 重要한모멘트가되는것이다。

演奏가 이『죽은狀態』의 樂譜를解釋하고 새로운生命을니케하는것이니만치 그演奏者가 社會的 人間으로서 가는바 作曲者와달른 思想、感情이것은 當然한노릇이다。허므로 演奏者가 原作曲者의意圖와 相異되는境遇가 設或잇다하더라도 그것은許容할수잇는 藝術的態度다。

音樂批評에서 評價의距離가크게달른것은 文學이나 映畵批評과가튼데서보는 어떤한作品에對한對立的인見解가甚한것과同樣으로、甚하면、박그네르에對한 한스리크와 암뿌로스의 對蹠的인評價와가튼 極反對의例를 얼마던지차저낼수는잇다。허나不幸히우리가오늘가진 作品에는 아직도批評할만한 水準에到達한것은 업다。단지演奏批評이 多數를占하는것이나、거기에 對해서는作品批評에서보는바와가튼 極反의見解(評價)는잇지안타、即 어떤提琴家가 멘델스존의 協奏曲을演奏하얏슬경우에、그演奏者의技巧와解釋을비롯하야 原作에對한思想感情의發露와、그表現된音樂的情緖等을 評價하는데잇어서는專門批評家의 點數는大體로一致되는것이普通이다。

音樂을 鑑賞하는것은 그自體가하나의批評行爲를 가지고잇다 다시말하면 우리가音樂을 들을때 단지本能的이나 肉體的이나受動的으로바더드리는것은아니다 웨그러냐 할것가트면 鑑賞하는사람의 感覺과 演奏하는사람의感覺과를比較하는일과 또한가지 原作者의 感覺과의 比較하는일이 생기는때문이다。

하므로 音樂을鑑賞하는 그의批評行爲에서는 그作品、演奏가 우리들自身이 생각하는現實과一致되느냐 아니냐는것에 基本的인問題가잇는것이다。感覺的으로 共感하는일은 結局 世界觀的으로도 共感하고잇슴을 한注意할것이다。

어떤사람은 뭇기를 우리들이 가튼 모-차르트의音樂이라해도 듯는때의 氣分에따라서 어떤때는 질겁게 또어떤때는 슬프게생각되는것은 웬일이냐?고。물론 感情에 흔들리기쉬운 人間의心情이라 때로는 自己가사랑하는 사람에對해서도 境遇와條件에따라서는 憎惡하는수가 往往히잇다 는데서 經驗하듯 우리들의 感覺이나 理性은 正常한狀態만을 持續한다고할수업스므로 때로 우에서 말한것과가튼 感情의飜走에는 그感情만이 아니고 理性까지라도 이미 正常性을 喪失當한것이다 여기서 往往히印象批評을 試하는 사람들이 犯하게되는 秘密의陷穽이 잇는것이다。

조타 나쁘다는 裁斷式인 獨善主義에서 滿足하는迷妄은 印象에만 全部를 두는鑑賞態度에서나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아페서본바와가튼 鑑賞과批評의矛盾에 當面해서 단지自己主觀으로되는 鑑賞만을 正當하다고생각하는때문이다。

그러므로 眞正한 音樂批評은 演奏批評은 自己가 感受한 即自己가 어떤作品 혹은 演奏에 鑑賞自體를 絶對化하지아니하고서 바른感銘(感動)을 第三者的立場에서 冷酷하게 凝視하고그것의 性質을分析하고 論理化시키는 行爲를이름이다。

그러치안타면 한音樂會에모힌千名이면 千名의 聽衆이모두가批評家가 되고말것이다。

音樂은 얼는生覺하면 感覺(感情)에 直接的으로 呼訴하는藝術이니까 그저듯고 享樂하면그만이고 批評가튼行爲는 無用한것이라는 無智와 그것이 지나친데서 惹起되는 觀念의 混亂으로 批評無用論(樂評活佐氏見解)이 생기는수도잇다。허나 뮤-즈는 太初에 音樂을 生產物로써 맨드러노흔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樂壇을 보면 批評에對해서 神經質的인 態度를 取하는演奏家가 [illegible] 批評이가지는 機能과役割이 무섭게 影響이 큰것을 自認하는것에 [illegible] 事實이지만、그들이 神經質的으로 批評에對해서 머리를알코잇는것은 [illegible] 批評이 쩌-날리스틱한評이가운데서 좀더 조흔批評이 잇서주기를바라는 利己的인것에 不過하다。여기의 微妙한事情은 文學과도 달너 繪畫보다도 더한층 深刻한것이 잇다。音樂家는 單純하고 感情的이니까 델리케이트한 感情가운데 膠着되여잇다는말은 오늘은 결코 通用되지안는 抛棄된 空文이다。

여태까지 演奏家를 問題한것이 大部分이엿스나 내가使用한演奏家란 用語는 藝術家(音樂家)란 內容과條件을 附與한것이다 허므로 技術家와 演奏家는 말하지안허도 區別될것이고 技術家가 音樂家가아닌것을 明白한일이다 時事的인 問題는 이音樂技術家가오늘朝鮮에서는演奏家(藝術家)行勢를하는일이다 文科大學에서 修辭學과文法에 能通한 단지그것을 修練한사람을 가르처 作家 詩人이라고할수업는것이나 다를것은업다。

演奏家와 技術家와의 甄別은 以上論述한가운데서 推知할수잇는일이거니와 아프로 聽衆의鑑賞眼의 向上과함께 그것을區別하는것쯤은 容易하여질것이다。要컨대 技術家의 演奏에對해서는 何等의 批評的對象이될만한 資格은업는것을 말한다 (끗)

新刊紹介

▲가톨릭朝鮮 八月號 平壤府館後里 가톨릭朝鮮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野談 八月號(內容) 痛快無雙佳人美男傳話 奇人奇事錄、失戀愛婦 韓末秘話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三十錢

▲四海公論 八月號 世界動亂特輯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鑛業時代 第四輯 發行所 京城府孝子町一八〇 鑛業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게자씨 八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一八三의二一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二三一番 定價十錢

▲慶北老會敎會報 第一三三號(月刊) 發行所 大邱府南山町 慶北老會 敎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定價五錢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 伴奏料一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交附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申請金을 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공 賞金을 授與함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 —(슈벨트)—(男聲) / AVE MARIA (아베·마리아) —(슈벨트)—(女聲)

【피아노】 IMPROMPTU(卽興曲) NO.4 (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協奏曲)NO.6(BE LA MAJOR)第一樂章—로-데

【審查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胃酸過多

食後가슴이압흐고、트림이나와서 시듸신물이나오고空腹時에胃가압허。

여러한 胃酸過多症狀은 特別히자리에 드러눕程度의苦痛이안이기때문에『가슴아리』쯤 여라고 輕視하기가쉽지마는 早期에治療지안흐면 過剩의胃酸이不絶히胃의 粘膜을刺戟하는 結果胃病은 몹시거처러지고 症狀은惡化하야結局은胃潰瘍이될念慮가잇습니다。

不快症狀、胃痛을除去

新治療劑ノルモザン錠은 弱酸알미니움을主成分으로하야 ①…胃粘膜의被覆保護 ②…胃酸의吸收 ③…胃液의分泌抑制等의 諸作用에 依하야 잘制酸效果를나타내고 不快症狀을업새여서 胃痛을곳치고 胃潰瘍에의移行을막습니다。

◇로-도엑스의配伍에依하야 鎭痛作用을强化하게하며 또한便秘에도奏效합니다。

效能 胃酸過多、가슴아리、트림、신물、溜飮건구역、胃潰瘍、胃痛、胃가다루、胃擴張、便秘、惡醉、宿醉、船暈、車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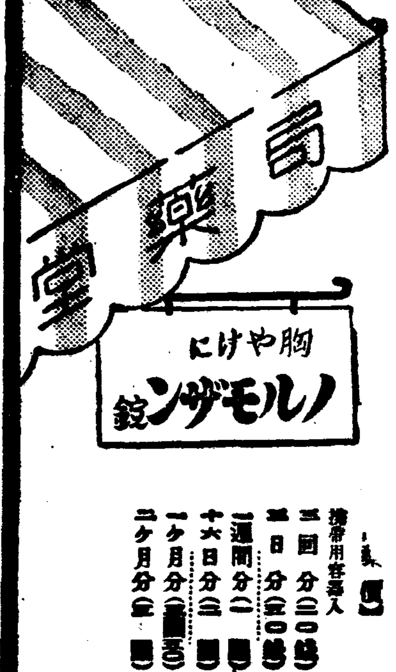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東京市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價 携帶用容器入 三回分 三日分 一週間分 十六日分 一ケ月分 二ケ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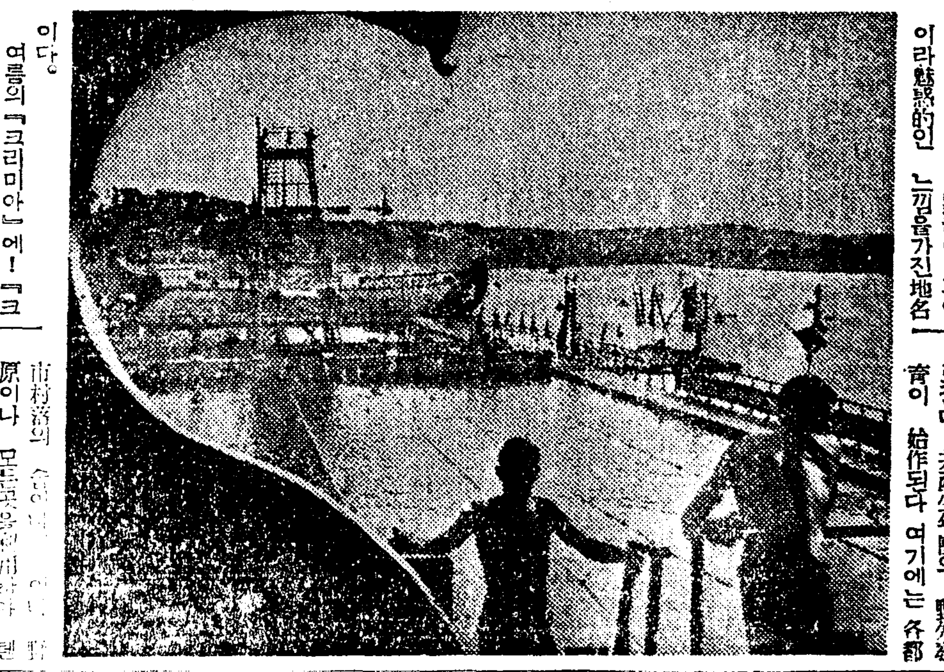
001566

歐米여름趣味 ②

소聯사람들의여름은 크리미아로!

바다을그리워하는그들의生活

在모스코바 秋泰植



一年의三分의二를 灰色의겨울에 잠겨잇는 蘇聯사람일수록 빛과陽色의여름은 最大의歡喜인것이다 全혀 一日中밤과낫의差別이업는 陰鬱한北歐의겨울은 朝鮮에서는 想像도할수업는것이다 안개끼인겨울의倫敦이나 날이짧은 佛蘭西의겨울날보다도 憂鬱한 露西亞의겨울은 드리어여름의 意義가切實히 느껴지는것이다。

그리하야 이여름의避暑地로서 露西亞의代表的인 場所는무엇이어떠니하야도 南方카프카ー즈며 크리미아일것이다。크리미아ー이것은 北國에살고잇는 露西亞人에對하야 무엇이라魅惑的인 느낌을가진地名이다。

여름의『크리미아』에!『크리미아』!!에 이나라사람에는 그목숨과바꾸어도아깝지안흔 그리움을자아낸다 거기에는許多한 國立別莊이잇고 療養所가 세워저잇다 옛날이나라의貴族들의 別莊、邸宅이 지금은모두國有로 徵發되여서 잇는것이나라가아니면 볼수업는일이다

그리하야 여름이되면 勞働者、軍人이大擧南下한다 모스크바로부터 레ー닌그라ー드로부터 카잔으로부터 스바에르들스크로부터 노보시비리스크로부터 南方크리미아를 向하야떠나는 汽車、汽車는 모두滿員으로 되여잇다

그러나 아무리 소베ー트라하더라도 모두가 이곳에 無料로 갈수는업다。일에 模範的能率을내인 所謂『스타하노비쓰』라고 부르는 勞働者는無料이나 其他의 여러사람은自辨이다。往復汽車賃이 모스크바로부터 四、五百留、滯在費가 一週間잇스면 아무리節約해도 最低六百留은 가저야하며 普通은 一千留를 突破한다。普通勞働者나 事務員의一個月給料는 二百五十留로부터 三百留임으로 그들은 三個月分의 給料를 要하게되는것이다。借金을해가지고 크리미아로 가게되는것도 無理가아니다。

◇

少年이 次代의 國民을 形成하는意味에서 貴重케 역이여지는것은 現代國家의 共通普遍的인 現象이나 特히 蘇聯에서는 特殊的이다。學校는勿論 演劇、映畵、스포ー츠其他 모든社會的施設은 全部少年을 爲하야 施設되여잇다。그리하야 國家가 이를 少年敎育에 最大의힘을 注入하고잇는것은 軍事敎育이다。理想的인 共産主義者를 養成하는目的으로 피오ー닐少年共産黨員을 組織하고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이피오닐ー의活動은 軍事敎練을 通하야 모든 方面에 活動이 要求되고잇다。民警에의 協力民間飛行의 普及發達事業等等헤아릴수업시만타。그리서 六、七、八三個月의 夏休、即學年末休暇를 利用하야 猛烈한軍事敎練을가르킨다。共産少年團의 野外敎育이 始作된다 여기에는 各都市村落의 [illegible] 原이나 모든곳을利用하야 텐트속에서 野營生活을한다。아침일직일어나고밤잠때까지 食事、體操、休養모든것이 軍隊式敎範의 規律에依하야 行해지고잇다。

이共産靑年團의 軍事敎練을 指揮하는것은 有名한 오소비아힘(소聯邦國防飛行化學建設後援會)이組織은 模型飛行機 파라슈ー트、小銃、彈丸、戰車其他모든 軍隊가가진것은 무엇이나가지고 잇서서 이것을 共産少年團의敎練에 쓰고잇다 따라서 外國의 軍事敎練과가티 形式的인것과는 比較가되지안케 整備해잇다 勿論 經費가얼마가 들던지 問題하지안는다 全部國家의負擔이다。이때문에는 特히 專用列車가編成되는形便이다。(사진은 물을그리워하는소聯사람들)

『空中을달리는사랑』

現代가 가진바 아메리카映畵界의 三大 大스타ー크라ー크·게ー블 푸란초트ー톤、쪼ー크로포ー드의競演으로 喜劇領域에드는 愉快한映畵다。監督은W·S반다이크로메트로골드윈社作品 六日부터府內明治座에서上映

라디오

五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學校劇『자장가』 培花女子普通學校兒童 指揮 洪銀枘 伴奏 洪淳智
◇同六時三〇分 (東)近世日本英傑(第一放送)伊達政宗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디오大學『自然科學篇』 沈亨弼
◇同八時 北支事變에直面하야 警務局長 三橋孝一郞 通譯 權五鎔
◇同八時三〇分 (平) 西道歌謠 一、芳草打鈴 二、梁山道 三、開城難逢歌 四、배따라기 五、자진배따리기 吳明姬 洪龍珠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天皇地皇 二、唱劇調 三、國誌中舌戰群儒 李東伯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木曜컨서ー트
◇同六時 (高)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 (東) 近世日本英傑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從) 農山漁村
◇同八時三〇分 (山) 水十夜
◇同八時四〇分 (東) 詩吟
◇同八時五〇分 (城) 謠曲
◇同九時五分 (大) 社會面

六日(金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國語(三) 咸淵默
◇同〇時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波濤를넘어서 二、라펄로마 三、콜로라도의달 四、노돌江邊과梁山道 五、打鈴 六、푸아·오·리코·레후아 七、알로하·오에 하와이안뮤식크럽 指揮 張明浩
◇同六時三〇分 童話『임자업는책상』 東京放送童話研究會 盧良根
◇同六時三〇分 (東)近世日本英傑(第一放送)(二) 伊達正宗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웅녕이낙시질』 尹愼榮
◇同八時 時局講座 白寬洙
◇同八時三〇 빠이올린피아노소나다第五番(스프링소나다)…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몰토、에스프레시보 第三樂章 스케르쏘 第四樂章 론도 洪志裕 金元福
◇同九時 古談 魂返山海關 申淸居
◇九時三〇(東)時報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野球
◇同一時一〇分 (東)野球
◇同六時 (德)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 (東)日本英傑
◇同七時三〇分 (東) 軍歌
◇同八時三〇分 (大)水十夜
◇同九時 (東)時事解說
纖續(大)歡謠物語

七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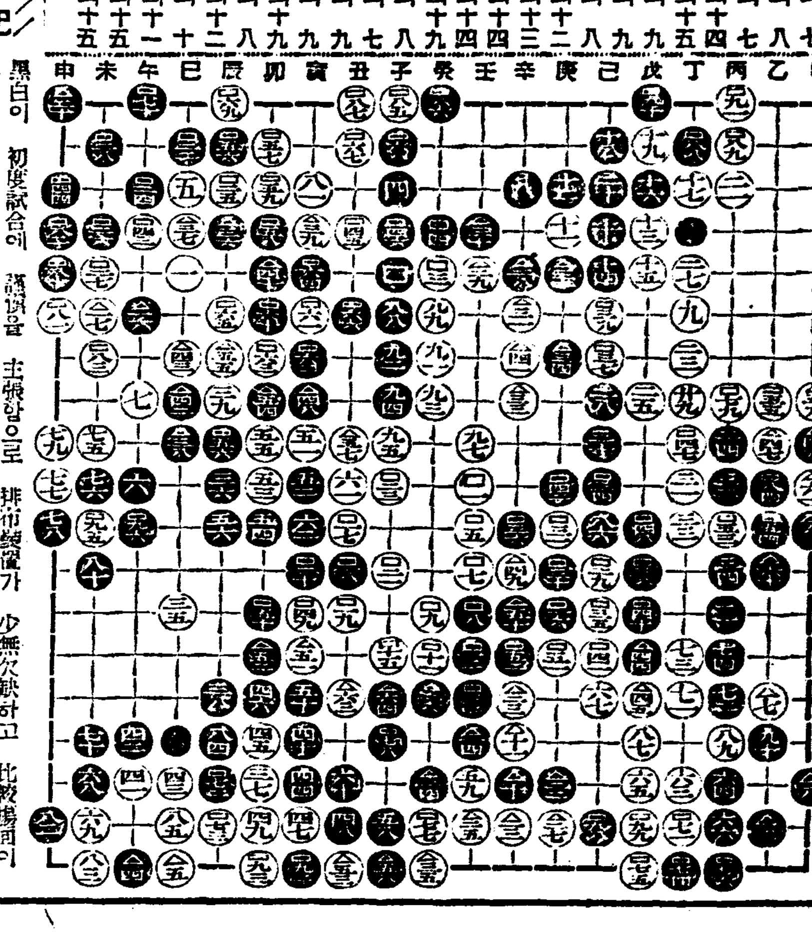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算術(三) 安興奎
◇午後〇時五分 (東) 아코ー디온·밴드 돔보·아코ー디온·밴드 (續)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三〇分 이야기『白衣天使나이팅게일』 高一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禍福과修養(二) 李明世
◇同八時 週間時事 金爵伊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瀟湘八景 丈夫恨 沈相健 杖鼓 丁元燮
◇同九時 라디오드라마『故鄕을이저바린女子』三景 配役 秦明淑 金昌基 順女(그의妻) 池季順 環姬(秦의前妻) 池羅順 洞里老人 金葉 太公望 解說 作及演出 金健 效果 李康 라디오劇同好會

第一放送
◇午後一時五〇分 (東)野球
◇同六時 (同)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 (城)兒童스케취
◇同七時三〇分 (城)講演
◇同八時 (東) 敎育會議
◇同八時三〇分 (哈)水十夜
◇同八時四〇分 (東)俚謠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圍棋對局譜 (15)

本社主催

白 第三回戰 廣瀨仲子
尹昊鉉



辛의七 巳의八 巳의七 戊의十四 戊의十五 甲의九 乙의九 寅의八 辛의十二 辛의十三 寅의十四 卯의十四 丑의十九 卯의八 辰의七 辰의九 丑의九 子의十九 甲의八 乙의十二 甲의十 甲의十一 丑의十五 子의十五

白 三十三目 廣瀨仲子
黑 三十二目 尹昊鉉
白一目勝

觀戰記

黑白이 初度試合에 主張함으로 排布經營가 少無欠缺하고 比較場面이 俱是均一하니 足爲棋家之模範이요 黑一目不及은 此亦奇事로 是認하노라

靑色旗

떼트리히의 갸륵한友情

다레ー네、떼트리히가 아름다운 友情을發揮하야相對役을 感激시켯다는이야기ーㅡ런던필모의 알렉산더 ㅡ끌다의招請을받고 六年만에 渡英하야짜크·페ー데監督下에 『武器업는騎士』를 撮影할때의 일인데때 마침 相對役의로 버ー트·도나트가 急病에걸려서 入院하야 四週間동안 撮影을中止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

끌나로올때는 高級스타ー를 四週間이나 아무일업시 놀리고잇슬수가업서서 하는수업시相對役을 새로求하게되엿다。이것을 안떼트리히는『한번決定한일을 變更하면 도나트가失望합니다 나는 그가 全快될때까지 一錢의給料도밧지안코 기다릴터이니 그가나흔뒤에 撮影하기로합시다』하고 四週間이나無手當으로 기다려서 도ー나트가退院한뒤에 撮影하얏다。

도나트는 그女子의好意에感激하야 同映畵의 프레미아쇼ー의밤 觀客아페서 떼트리히에게 感謝의뜻을 表하얏다。

サア!流行歌とジャズと踊りの豪華版
人氣者·花形總動員の大壯擧!

テイチク祭り

申込み殺到 早く早く 今の中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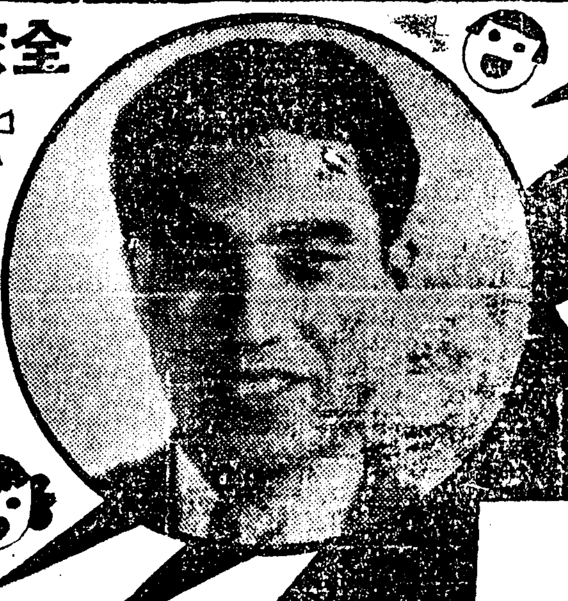
이面貌들을보아주십시요! 헤치마코론이 아니고는 할수업는大英斷空前絶後의大써ー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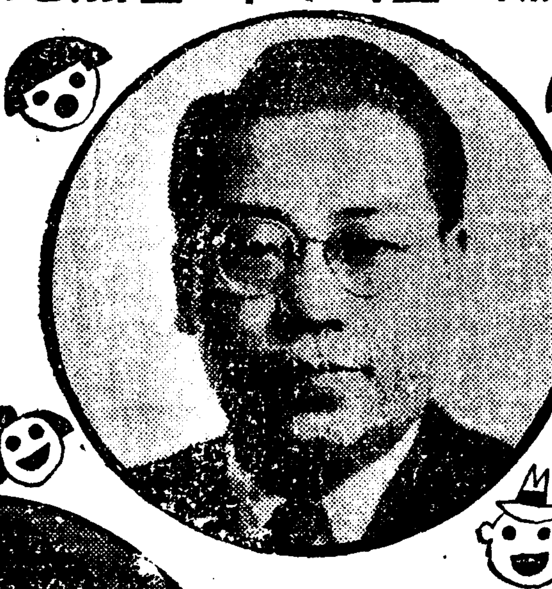
레코ー드界의覇者 데이지구의人氣歌手

楠木繁夫
ディック·ミネ
美ち奴
チェリィ·ミヤノ
小泉幸雄
外에 데이지구레코ー딩오ー케스트라 全員

御招待日時 八月十四日 晝三時·夜七時(二回)
會場 京城 府民館

全家族이함께기배할無比한滋味!





東京서도 혼이볼수업는모임! 興行이면一圓以上의價値는充分히잇습니다

肉聲亂舞 歡喜漲溢 한大舞臺 노친다면 百年의損

쓰신뒤의빈갑으로이幸福이당신의것이됩니다

招待券은 小賣店에서 드립니다 아모조록빨리!

招待方法

★小賣店에서 헤치마코론이나 헤치마크림을사주시면 招待券一枚式進呈합니다
但 五十五錢瓶은二個에招待券一枚式 五十五錢瓶以上은各一個에招待券一枚式
★招待當日招待券을꼭 헤치마코론이나 헤치마크림의빈갑에添付하서서會場에持參하십시요
★收容人員에制限이잇사와 滿員일時는 遺憾이오나入場을謝絶합니다
★될수잇는대로빨리오십시요

株式會社 近源商店 天野源七

ヘチマコロン愛用者御招待

140CE·G

中部版

始興郡主催의 時局講演盛況 果川新東兩校에서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주최의 시국인식강연회는 일이래 과천(果川) 신동(新東) 량공보교에서 내무주임 구기(久吉)도회원 김민식(金敏植)량씨가 순회강연을 하엿는데 모다 관공리 학교직원 면협의회원 구장 농촌진흥회원 청년단간부등 다수로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新府域京南一帶의 汚穢物은放置狀態
舊府域과同一取扱을累次陳情 京城府는아직도聽而不聞

【京南】 경성부에 편입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잇든 신구역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경성부에 편입된지 다일년이지난 지금까지 경성부민으로서의 혜택이라고는 별로이 바더보지못하고 도리여 원성만놉다 그중에도 경남지방 리태원정(梨泰院町) 서빙고정(西氷庫町)은 요사이 하절을당하야 위생시설에관하야 원망하는소리가 더욱 노파젓는데 그내용을 자세히 드러보면 그들은 제일 쓰레기(塵埃)와 분뇨(糞尿)처분에 대곤난을 당하고잇다 서빙고정 가톨릭은 동정회(同町會)에서 부당국에 기부를 자원하야 가며 서빙고정의 오예물처치를 의뢰한바 거절을 당하엿고 그외리태원정 보광정가튼곳은 겨울이나 농사철이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분뇨(糞尿)를 비료에소용하고 청소(淸掃)한다하나 비료에소용이업고 위생에 더욱 주의하여야할 하절에는 인부를 식혀청소 처치할수밧게업서 큰곤난을밧고잇다하며 압흐로 경남지방 각정회에서 오예물처치건을 재차부당국에 진정하겟다고한다

第三種教員試驗에 給仕兩名이合格
京畿道廳에忠實히勤務하며 苦學으로今日成功

금년칠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소학교와보통학교 제삼종교원시험의 합격자가 오일발표되엿는데 그중에 경기도청급사가 두명이나 고학으로 합격되엿다 산림과(山林課)급사인 허식(許軾)(一九)군과 학무과급사 정원도(鄭元道)(一九)의 량군으로 평소의 근무도충실히하야 일반청원들에게 애호를바더왓는데 이번 전기와가티 고학으로 성공을하엿다고한다

知識階級도 紹介所利用

【仁川】 소화팔년으로부터 십일년에 일으기까지에 인천직업소개소의 통계를보건대 소화구년을경계로하야 지식계급의 구직자가 늘고잇서 〃인테리〃계급에도 구직난이심한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잇다는대 세별은 다음과갓다

	中等程度	專門程度
昭和八年	八○人	九人
同 九年	四五人	一人
同 十年	一二四人	一八人
同十一年	一一八人	一五人

青年團을激勵 片岡鍾紡工場長이

【永登浦】 시내영등포청년단(永登浦青年團)은 금춘에조직된이래 삼십여명단원의 수양에전심하야 다른청년단의 모범을보이고 잇섯는데 근일에 북지사변이급박하여감을따러 정내의경계와기타 사회봉공에 활동하야 일반의칭송이놉흔동 편강종방경성공장장(片岡鍾紡京城工場長)은 이에감격하야 본보영등포지국(本報永登浦支局)을통하야 금삼십원을 동청년단장김수명(金壽命)군에게 보조하엿다고한다

長湖院住民도 千餘圓을獻納

【長湖院】 북지풍운은 마침내본격적으로 진전되는이때 일반국민은 거국일치로『총후의후원』을하고저 전국각처에서 국방헌금이 답지하고 잇는바 경기장호원 지방에서도 청미면(淸渼面)사무소를 통하야 금일이일현재로 적기의 국방헌금이잇섯다

金應培三百圓 鄭殷燮百圓 李殷雨百圓 梁在玩百圓 鄭在新百圓 李殷鵬五十圓 劉寅植五十圓 長湖院酒造株式會社五十圓 李龍範三十圓 朴道範三十圓 金秉瑞二十圓 白甲龍二十圓 李德雨二十圓 鄭景善二十圓 崔平五二十圓 李容淳十圓 兪永老十圓 李漢伊十圓 李容燦十圓 李昌雨十圓 尹鶴燮十圓 金鎭相十圓 池應述五圓 尹泰興五圓 盧承元五圓 李昌鎬五圓 全世模五圓 河吉甫五圓 張寅鎬五圓 全泰植五圓 李春化五圓 崔鎭南五圓 李圭泰二圓 盧有煥二圓 井口千藏二圓 計一千一百三十六圓

危險한阿片服用 吐瀉에먹엇다가即死
仁川府花平町에생긴慘事

【仁川】 토사곽란을 일으킨자기 자식에게 아편을먹엿스나 불행이맛하서 즉사하엿다는 풍여중에도 가슴이 서늘한 사실이잇다 인천부화평정(仁川府花平町)륙번지김운성(金雲成)은 자기장남김성기(金聖基)(三)가 지난사일밤 악간토사를 일으키여 소동을하고 잇슴으로 응급책으로 동일오후팔시경에 아편을 먹이엿든바 돌연동십일시경에 급사하얏다 인천서에서는 시체를 검시하는일방 각방으로 엄중조사 중이라는데 전기아편은 김씨가 약십여년전에 경성방면에서 매입한것이라는데 일반은 여름철에 일으키는토사에 아편의복용은 가장 주의할일이라한다

列車時刻改正으로 運輸業者大打擊
仁川에서緊急策講究

【仁川】 북지사변으로하야 전조선각철도선로의 운전감회와 시간개정으로인하야 물화의소화는 물론 각운송업자에 적지안흔타격을주어 그파급되는정도가 격심하고잇슴으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오일오후네시부터 각해륙운송업자 세관급 교통부원간담회를개최하고 현재에 운전하고잇는렬차로서 여하한방법을취하여야 화물의소화를 원활히식힐수잇슬는지 또는좀더 완화될방침을 연구키로하얏다한다

廢物을蒐集放賣 國防獻金키로活動中
關東明德青年團平康分團에서

【平康】 지난사일 관동명덕청년단 평강읍내분단(關東明德青年團平康邑內分團)에서는 현재 비상국에처하야 국방에대한정성은 분단원이다가트나 경제문제로 뜻을이루지못하야 늘연구하여오는바 분단장 김덕조(金德祚)씨의 발기로 단원최상원(崔尙元) 황수영(黃壽永) 정군옥(鄭君玉)등 칠인의 역원회를개최하고 폐물을리용하야 국방헌금할 묘안을 결의하고 전단원이 총출동하야 이일간 읍내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이미다본 신문、잡지『뻬루』병『사이다』병을 모집방매하야 국방헌금을하기로 하엿는데 읍내 일반사회에서는 이가튼적성에감격하야 헌금까지 내여주는인사들이 만히잇서 동청년분단에서는 감사함을 마지안는다는바 당일모집된 금액과건수는 다음과갓다는데 그들의 이가튼 미거에대하야 일반사회에서는 칭찬이 자자하다고한다

現金十八圓十錢也 新聞六貫 雜誌古本六貫『뻬루』『사이다』병합 七百五十個

松岳山의避暑客들도 豪華스런遊興은中止
時局反響인지人心은極度로刻薄化 開城八十名妓生은休業狀態

【開城】 개성은 바다가업는 관계로 여름철만되면 송악산(松岳山)및 각처에『물지당노리』가 유명한바 요즈음도로 심해진더위와함께 이산수를찻는 피서객들은 나날이 늘어서 시내자동차는 매일새벽부터 밤열시까지 총동원이되여 손님을 실어날으기에 안비막개——그래도원체수만흔손님은 돈두고도 차를탈수업다고 불평이자자하다 이처럼 자동차세월이 가장조화진이때 예년가트면 여기따러 화류계경기도 한창조와서 하로ㅅ낫에 산노리로만 불리는기생이평균 사오십명은 되엿다는데 금년드러서는 개명권번(開明券番)의 통계표를보니 놀라지말라 겨우하로에두명내지 세명이라한다 이때문에 현재 팔십여명의 기생중 근사십명은 휴업내지폐업을햇스며 여기따라 인력거꾼의세월이또 말아닌형편이라한다 이것을보면 오늘날개성부민의 심은 북지사변에 극히자극된바 그들이 온종일 더위에 쪼끼여 자동차바람에 피서는갈망정 건성의 주의를갓고 기생을불러노는 호화로운산노리만은 안하는것을 알수잇다한다

愼司法主任榮轉

【永登浦】 경남(慶南)교원등의모종사건을검거하야 결말을짓고 소화구년륙월 경남도경찰부에서 영등포경찰서로영전하여온이래만삼년이개월간 약진영등포의 범죄방지에 도시명랑화를 기함에 최선의진력을 다하야 다대한공적을나타내이고 만흔공헌이잇는 영등포경찰서사법주임신량재(永登浦警察署司法主任愼良縡)경부는 이번에 총독부경찰관강습소 조교수에 발탁되여 불일부임키로되엿는데 씨는 성격이대단히 담박강직하고 온후관용한 정형적관리로 관기숙정의모범적실행자로서 관민간에그음덕(陰德)을 정모칭송하든터인데 씨가 영등포서에 부임한이후 동서내직원간에 지극히 평판이조코 원만하엿스며 또한영등포가 발전되는반면에 강도 절도 살인 방화사건등이 계속적으로 빈발하는 중대사건을 모조리 검거하야 한건도 실수한일이업는 민완가로서 그공적이 실로크다고한다 씨의인격 화식수완이 모다 도내에 명경부로 호평을 밧게된것도 우연지여기인한것이라고한다

金浦에도獻金遝至

【金浦】 금번북지사변으로인하야 일반시민은 긴장하고잇는데 지난이일 김포경찰서장을 방문하고 국방비로 써달라고 기탁한총액과 그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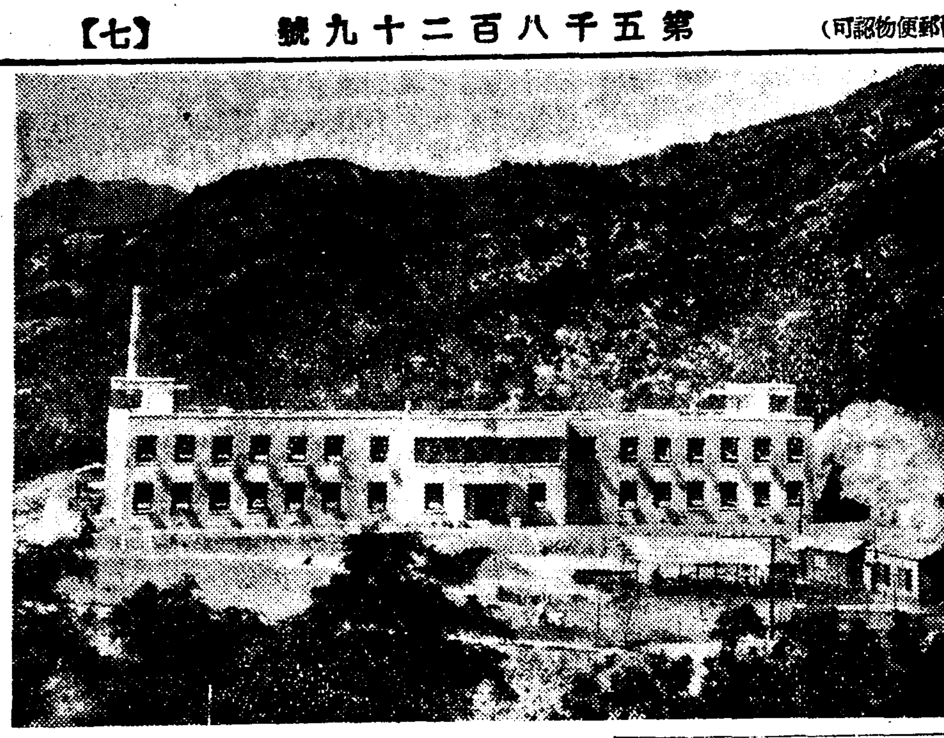
冬嶺里新堂青年堂 興童一同 四圓 不老青年團 五圓 豐舞里李玲熙十圓

上海에虎列刺發生
仁川港出入船舶을嚴戒

【仁川】 인천은 상해(上海)를기점으로하야 중국항해선의 출입이번다한만큼 각방의경계를 게을리하지안코잇는바 작금에전하는정보에의하면 상해방면에 악성호렬자가 발생하고잇서 가장위험한상태에잇다는바 이소식을접한 인천서에서는 출입선박에 경역은물론 특히 상해방면으로부터오는 선박에게 엄중경계를 더하리라하며 부민위생문제에잇서서도 각별한주의를 가하겟스나 일반주민간에도 음식물등에 만흔주의를 하기바란다한다

地方人事

▲京畿道學務課勤務道屬田中實雄氏는 三日附로 本道知事官房主事에被命
▲京畿道學務課長 橫山幸生氏는 本道地方課長으로 도學務課長에는慶南에서山下理事官이轉任
▲新海公氏(永登浦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報永登浦支局來訪
▲二階堂靜氏(前永登浦警察署長) 勇退人事次本報永登浦支局來訪
▲吉井勳男氏(前永登浦警察署警務主任) 鍾路警察署에轉勤人事次本報永登浦支局來訪
▲中島勇夫氏(永登浦警察署警務主任) 新任人事次로 本社永登浦支局來訪
▲愼良縡氏(前永登浦警察署司法主任)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에出向人事次로本社永登浦支局來訪



磐石가튼女商校運 弘濟町에新築校舍竣工
五日에移轉、落成式은來十月에

오래동안 파란중첩한 가운데에서 갈바를 모르고 헤매이든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商)는 교주한량호(韓亮鎬)씨를 마지하야 교운은 향상의 일로를 밟고잇든중 교사의협착을느낀 한씨는 경영비에 사재이십오만원을드려 무학재너머 홍제정(弘濟町)에신축중 최근에 그준공을보게되엇다 교사본관은 철근콘크리-트이층으로 건평이 오백여평이며 일백사십평의 대강당과 일백구십여평의 기숙사가 인왕산기슭에 웅장히소사나고엇스며 금오일에는 구교사로부터 신교사로 이전을 하고 이달이십일에 개학될 이학기부터는 여기서 수업을 할터이고 오는시월에는 전람회 운동회등을 개최하는동시에 성대한 락성식을 거행하리라한다 (사진은신축준공된 여자상업학교교사)

安養公普校擴張
校舍增築工事도落札

【永登浦】 시흥군서이면(始興郡西二面)안양공립보통학교(安養公普校)는 현재사학년제로 능천군수(熊川郡守)는 군내중심지로서의 공공기관으로서는 너무나불완전함을 통감하야 어데든지 학제로 확대연장을 실시할 전제하에 교사증축계획을세우고 그자금 조달에 분주하든바 주민들은 물론 관외지주들까지 군수의 성의에감격하야 다액의기부금을 자발적으로 속속신청하게되여 사업은진척되는중 동군회의실에서 공사입찰을시행한바 영등포 상원정행(上原正幸)씨가 사천구백오십원에봉사적 청부로 공사를 맛게되엿다고한다

＝長篇小說＝ 花冠 【八】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여름밤의꿈(八)

그러나 동옥은 마음대로 얼른 삼방을 떠날수는 업다. 누어서 아르시는것은 아니나 아모런 어머니가 병환으로 와게실뿐 아니라 혼자 적적해하시다가 자기가 온 다음부터는 맛상을 해 먹으니까 밥이 더 먹힌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혼자 게시라고는 말부터 나오지 안엇다. 그래 동옥이 혼자 공상의 산보를 하면서도 그런 기색은 보히지 안코 사흘을 지냇는데 아침에 황정에게서 편지가 왓다. 정히는 급해서 이 편지를 보고는 곳 떠나오라는 말부터 첫머리에 하여노코 다음과 가튼 사연을 려 쓴 글시로 석장이나 너허 보냇다.

——우린 퍽 재미잇는 두가지 미평을 주최한단다. 무엔고하니、우리 일가으빠에 공경유학하는 이가 잇는데 이번 방학에 우리집에와 묵으면서 사교딴스강습회를 열기로 하엿다。그 오빼는 딴스교사 면허장까지 바든분이니까 실력도 상당하고 아주평판잇는 미남이란다。왓다가반하지는 말아라 그런데 사교딴스는 운동도 될뿐 아니라 현대여성으로는 예의의 하나니까 배와두는것도 해롭지는 안흘것이다 또한가지는 여기피서온이 중에 유명한 문사도 잇고 전문학교 교수들도 잇고해서 일주일동안 문학、법률、위생가방면으로 강좌를열기로 했단다。멤버ㅣ가 모다 우리집에서 하게 되엿스니 너 꼭와서 첫날부터 참례하기 바란다。딴스는 아침에하고 상식강좌는 밤에 하기로 하엿단다——

동옥의 가슴은 더욱 뛰엿다 어머니에게 딴스라는 말만은 라디오체조라고 고처가며 이편지 사연을 전부 읽어 들리엇다。어머니는 황정히가 누구임을 이미 잘아시므로 가서잇슬데를걱정하지는 안흐나 첫마디로 허락은 하시지 안엇다

『어머니두 가십시다』

『여기 와 약물때문에 먹는게 좀 내려가는데 거길 가면어떠하니?』

『그럼 난…』

『의사가 안 그리던?나 가튼 사람은 바다ㅅ가엔 덜 조흘거라구』

『난、여기가、그허치 안어두실혀젓서』

『왜?』

『실치 그럼뭐…』

『왜?좀 시원하나? 저녁에두 모기 업는덴 여기뿐이라며라』

『물것만 업스면 제일인가?』

『그럼! 여름엔 시원하구 물 거 업는것웨에 더 바랄게 뭐 잇니?』

『……』

동옥은 입을 다믈고 말엇다 시원하기만 하고 물것만 업스면 고만인 어머니의 생활이차라리 편안한 생활이긴 할것도가탓다。그러나 얼른 속으로『난 아직 피로한 인생은 아니다!』하엿다。그리고 어머니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한 감정대로

『그럼、난 서울로 도루 올라갈테야요』

하엿다。

『뭐?』

『누가 섭한 사람이 병자들만 욱실욱실하는데서 잇서…』

『그럼 어떠하니? 한번 가본데두 아니구 거처할데가 어떤지두 모르구 동무에만 팔려 아무데나 다니면 쓰나?』

『뭘! 정히네집인데…을여름이 마지막방학이라구 어디던지맘대루 댕기라구 해노쿤 뭘?』

그래도 어머니는 선뜻 허락하지 안흐실 눈치엿다가 이튼날 아침 정히로부터 또 한장의 재촉편지가 오는것을 보고서야、일주일만 잇다가 와야 한다는 조건과、또벨별 당부를 다 마지 안흐시고、변소에도 가지말라는 것까지 일르고야 허락을 주시엇다。

동옥은 안변(安邊)서부터 처음으로 타보는 동해선(東海線)이다。멧정거장 안 지나서 바다가나왓다。동옥은 입을 딱 버리엇다。동모만 잇스면 손뼉까지 처줄것이다。실개천 하나를 지나도 손을 씻는 듯 시원한 감촉을 바다오다가、물이 아니라 하늘이 온통 쏘다진것 가튼 어마어마한 물의 광야가 펼처질때、손 하나나 자기 몸뚱이 하나가 시원하다는것보다 기차가 통채로 물속으로 달리는것 가탓다。

寫眞은 ホルモーゼ를創製하신 中井醫學博士와 本研究所顧問南先生께서藥物研究次朝鮮旅行時의紀念撮影

性慾學界의 大權威인
醫學博士中井先生께서
多年苦心研究하든結果
生殖機能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를遂發見創製함

老少男女를 勿論하고 人生幸福에 關心을가진사람은 모름즉이 多年間研究하야 完成創製의大業에 成功한 性慾學界의하나밧게업는 大學者中井醫學博士의말을드르라。아래博士의말合을記錄함(係)

創製者 中井醫學博士談

ホルモーゼ(ForMose)는余의多年苦心研究의結果完成한純性홀몬劑이다 ホルモーゼ는 東洋固有의哺乳動物의 臟器中에서生殖腺홀몬의『엣센스』(Essens)를 化學的으로抽出하는데成功한것이다 ホルモーゼ의 特長은人體에잇서서의 生殖腺의內分泌作用을 亢進식히며 生殖器障碍를根治식혀서 生殖機能作用을 復活旺盛케하는 同時에活潑한 作用을持續식히는데 偉大한 效果가잇는것을 發現하게되엿다 ホルモーゼ의 服用에依하야 性的不滿을 一掃하고 潑剌한元氣와精力을어더心身共히 完然히젊어지며 人生이再逢春하야히잇는 人生歡喜를把握하야서 人生의 幸福을滿喫할수잇슴을絶對로 맛어疑心치안는바이다 生殖器障害에 苦惱하는者와 精力의增進을 바래는者는 男性、女性을 勿論하고반듯이 本劑의服用이 가장肝要한줄안다 以上

國際ホルモン研究所長談

男女를勿論하고 또 老年、中年 青年을 莫論하고 모ー든疾患의 原因이奈邊에잇는가하면 結局根本原因을차저내면 人體內에 홀몬이 缺乏한것입니다 이것은이제 새삼스러히말할必要가 업거니와이제其原因을차저내인지는 이미오래엇지만 重要한其結果를찻지못하야 如何히하면 이難問題를 解決하야 生殖腺障碍、生殖腺發育不全、不能、早老其他精力減退等홀몬缺乏으로因한·疾病을根治할수잇슬가하는것이 醫學界의 重大問題가되엿슴은 勿論學者들이 全精力을바처서研究에 苦心하든끄테新界의 大權威인 中井醫學博士께서 苦心多年에 大成功을하엿슴은 全人類를드러서 祝福하지안흐면 안될일이고 特別히其研究가 우리東洋사람에게는 百發百中의 效力이잇다고하니 우리는이 中井醫學博士의 苦心의程度도알것지만 研究者의目的이 人類의幸福을 爲하야 多年苦心한것이니만치 하로빨리服用하야 人生幸福을 누리는것이 即研究者의게對한 報恩인줄압니다 本研究所에서도『홀몬』에對하야 研究하여오던中 이번中井先生의發明한 ホルモーゼ를實地로研究實驗해본 結果果然世界에서 처음보는大成功品이기로 率先하야 中井先生製品을 引受一般希望者의게 頒布키로되엿다 以上

青年 人生의 最大幸福期에 잇는 青春時代에性慾不足性器發育不全早漏不能症生殖器故障等으로 男性은 女性의게女性은 男性의게서로 不滿幸福을엇지못하는 男女는百發百中

老年 四十以上에벌서早老症이생겨서 異性의단맛을못보고 늙는것만한탄하는분들은 服用三日이면 更少年의깃봄을엇게되며 精力이强하야지고記憶力이 强하여집니다

房事過度 로恒常머리가무겁고記憶力이업서지며 頭痛이나고 憂鬱症이나고 神經衰弱이되는분은服用하면할수록 完快하여저서 人生의幸福을맛보게됨

人生이늙는理由

人生이 늙는理由는 體內에잇는生殖腺『홀몬』(內分泌)減退하기對함이다 即 다시 말하면 性慾이 減退하면할사록人生은 빨리늙는것이다 그럼으로 體力에『홀몬』이 充滿해잇스면青春의幸福을 맛볼은勿論늙지도안코 또늙은사람은 젊어지고 同時에 青春時代와가티 人生의歡樂을맛볼수잇다 青年의體內에『홀몬』이 缺乏은人生의自殺과갓다 도산송장과 무엇이다르랴! 男女老少를 勿論하고體內에『홀몬』의 補充이야말로生命線이다

服藥報告實例의一部

服藥三日채性慾이充滿 朝鮮平北慈城 金景瑞

生은三十一歲의 男子이오대女性을 對하야도 아무 性慾을엇지 못함니다 無理로 性慾이 업는것을 女性을 關係하면 翌日에는 또머리가 무겁고하야 苦痛中이번에賣所에서 頒布하는 中井博士의 藥을 三日채服用하니 머리는께끗해지며 性慾이 倍前하여집니다 또六(一)錠만더보내주소서

一週日服用하니마음도젊어저 朝鮮京城府北町四六 柳喜暻

貴ホルモーゼ를 一週日채服用햇드니 性慾이倍前하여지고 四十이넘은나로서 心身共히 青年時代와갓소이다。其間은或妻와 同房하면四五日은 氣運이업고 머리가무겁고하드니 其藥을服用한지 一週日이되니 全然그런症勢가 업서지며 性慾이强하야집니다 붓그러운말이지만 同房이자저집니다 後日또注文하겟나이다

ホルモーゼ는어떤病에百發百中인가 左記諸病에 百發百中이다 써보면안다

ホルモーゼ(FORMOSE)의適應症

(男性用) 陰萎(不能症)、早漏、遺精、夢精、健忘症、生殖腺發育障碍、兒童期生殖官能耗弱短小症、性慾減退、早老症、更年期障碍神經衰弱、憂鬱症、自慰障害、精液缺乏性不妊症、毛根發育不全에依한頭髮禿頭

(女性用) 兒童期不姙症、子宮發育不全、乳房發育不良、性慾缺乏、不感症、肥滿病又는其他의新陳代謝障碍、更年期障碍、無月經、神經衰弱、히스테리、憂鬱症、月經困難、健忘症及毛根發育不全에依한頭髮禿髮

▲藥價▼ 十日分 四圓八十錢 二十日分 九圓 一個月分 十三圓 二個月分德用品 二十圓 送料四十二錢

東京市向島區東三ノ百十六 國際ホルモン研究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一九四〇番

醫學博士中井先生創製 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受託制限下의 貨物取扱大要

朝鮮鐵道局에서는 鐵道局長의 名으로 昭和十二年七月三十日附 達乙第五百四十五號로 大要左와 如한 「一般小手荷物의 受託制限」을 發表하얏다 그理由는 「時局때문이라」는것으로 그期限은 「八月四日부터 當分間」이라고 하얏다. 또 準備期間으로서 八月一日부터 三日까지 三日間도 亦是 受託制限을 行하얏스므로 一般業者에 對하야는 實際上 이미 八月一日부터 實施된것과 同樣이다 受託制限下에 잇서서의 貨物取扱에 對하야 그 大要를 示하면

▲局線內發着及局線發連帶貨物受託制限

一般貨物

가、準備期間 自八月一日至八月三日 三日間小口扱及通扱貨物 左記品類에限함

野菜類、石油類、鹽類、魚類、味噌醬油類、醫療衛生品類、小麥類、砂糖、燐寸等

나、輸送期間 (八月四日부터 當分間) 小口、通扱、車扱共히 左의 品類에限함

品類는準備期間中의것과同一함 (輸送期間中은上記品類의 것의 車扱으로受託할수잇다)

다、受託에制限이업는 貨物이라 하야도 輸送力을 考慮하야 適宜制限하기로하고 또 制限貨物이라도 局의承認을 受하야 輸送할수잇다

特殊貨物(八月一日부터當分間)

石炭類及鑛石類

各事務所에 所要車를配當하야 其範圍에서 輸送手配를 講코 잇슴

▲連帶線發局線着貨物의 制限

가、鐵道省 京濱線 京濱航路及播丹線

七月卅一日부터 野菜及魚類品以外의 貨物連帶運送을停止함

나、鐵道總局線(滿鐵)

七月卅一日부터 連絡運送을停止함 但 石炭으로 軍用列車를 利用하야 輸送할수잇는때는 適宜 受託함

다、朝鮮內各私鐵線

局線內發着과 局線發連帶貨物制限에 準함

▲其他

七月三十一日부터 連絡貨物輸送을 停止함

小口貨物輸送方法

가、貨物列車(八月四日부터改正의)에는 中間車를 連結함 但 必要에 應하야 增減하는일이잇슴

京釜、京義本線 各列車四輛 京元、咸鏡本線 同 三輛 그리고 改正에依하야 京釜京義本線 即 釜山安東間 貨物列車二本外에 客列車의 後部에도 二三輛 輸送할수잇는것 一本 計三往復으로함

나、中間車에依하야 輸送하는貨物은主로 中間驛着發의것으로 하고主要驛間은 可及的 積合으로할것

다、八月一日以後의 貨車運用은 本局에서 取扱함

라、一車積貨物을 軍用列車로輸送하는 境遇는 其때마다 局의 承認을 受할것

受託制限下의 取扱方法의 大要는 上記와 如하거니와 運用車中 一般乘用에 充當하는貨車는 大體 有蓋車六百輛、無蓋車三百輛計九百輛으로하고 各管內의 配當은 左의標準으로함

釜山 二五 大田 八 順天 五

京城 二〇 平壤 二〇 元山 五

城津 五 清津 二〇

即 京城管內의 使用配當車數는 二百輛이다

이에依하야보면 八月四日以降 當分間은 上記의 野菜類以下九品類의 生活必需品以外의 一般貨物은 原則으로 輸送할수업게 된다 一般業者의 不便도 亦是 大端히 큰바가잇고 物資配給의不足 不均衡을 招來하리라고생각된다

京城은 人口六十八萬을 擁하는 大消費地로 昭和十一年中의 統計에依하야보아도 到着貨物은百四十萬五千五百七十五噸에 達하고 此中 仁川으로부터의 到着物은六十一萬二千三百二十五噸에 達하야 約四十四%를 占하고잇다 따라 京城에 가장重要한 輸送機關은 發着 모다 京仁線이다 京仁線이 上記와 如히 그他의 鐵道線과 同樣히 輸送制限下에 두게됨은 京城에 잇서 苦痛이다。上記의 事情은 鐵道當局에 잇서서도 充分히 諒解된것이므로 種種의 研究에 努力한 結果 京仁線만은 特殊取扱을 하기로되엿다 그大要를 示하면 如左하다

一、京仁線에 限하야 一般貨物의 受託制限이 업고 普通時와同樣히 受託取扱을함

二、但上記와如히 京城管內의 配當車輛數는 二百輛에 不過하야 車輛의 輸送能力을 增進하기爲하야 發送貨物의 車扱은 一日에 二輛限으로하고도 荷役에 時間을 要하는 貨物은 受託지안홈、小口扱은 從來의 境遇도 制限을 設치안코 普通時대로함 到着貨物에 잇서서는 車扱、小口扱모다 制限을 設치안코 普通時대로

要컨대 京仁線만은 普通時와 同樣히 取扱함에 依하야 京城內의 物資配給의 不圓滑을 最小限度에 그치게하려는것이다。

八月은 例年 所謂夏枯時季에 當하야 物資의 움지김은 一年中에서 가장閑散하야 他月에 比하야 二割가량의 減少를 示함이 例이다。그리고 一方 海運關係를보면 八月上旬 即 一日부터 十日까지 十日間의 仁川港의 入貨의 搬入豫定이 約七十五百噸에 達하고 此中八十%餘가 京城行이되는것이다。그리고 鮮航關係航路의 物資配給에對하야 약간의 減少를 示하고잇스나 目下로서는 今回의 鐵道의受託制限은 海運關係에는 큰影響이업는듯하야 現在의 海上輸送狀況은 그저悲觀할것이 업다라고생각된다

또一方 京仁間의 鐵道以外의 輸送機關에對하야보면 「트럭」이다 이 「트럭」輸送은 長距離할수잇다 即 自家用 「트럭」과 「트럭」이 京仁間에利用되고잇음은 相當한모양이나 이는그만두고 「트럭」運送業으로서는 京仁트럭株式會社가잇다 當社에對하야 調査하면 最近 購入의 新車를 加하야 現在 車數三十四臺가잇서 京仁間의 輸送能力은 一日八十噸乃至百噸으로 鐵道貨車의 約三輛分에 不過하다

以上은 受託制限下의 輸送狀況에對하야 其概略을 보앗는데 모든輸送機關을 總動員하고도 全能率을 擧하야도 아직 相當한 不便과 障礙의 紛糾를 惹起할 念慮가 업지안타 그러나 이減少도 亦是時下 非常時日本國民의 忍耐하고 또 克服치안흐면안될 時艱의 一일것이다

▲追報

上記의 受託制限品目外에 菓子、青果、煙草、漬物、食料品의 五品目을 追加하기로되엿다 따라 受託制限에 對하지안는品은

野菜類、石油類、鹽類、魚類、味噌醬油類、醫療藥品類、小麥類、砂糖、燐寸類、菓子類、青果類、煙草、漬物類、食品類

【京城商工會議所調査】

商品配給에 異狀

鐵道貨物制限、貨物自動車不足

商工團體應急策講究

今般鐵道手小荷物及 貨物受託制限은 時間關係로 突然히 四日부터 實施를보게된터임으로 商業界에서는 그에對한 準備도全然업섯슴으로 京城을비롯하야全朝鮮商工都市에 잇서서의 商品配給에 異狀을 生하게되엇다

그리고 이鐵道輸送制限以外에 配給線上에 重大한問題가 또하나잇다 그는事變關係에 依한 市內各處間及 都市와地方을 連絡하는 荷物自動車의 不足及運轉手의 不足이다 이리하야 今後配給에對한 應急策은 緊急重要하는터인데 일즉부터 京城商議를 비롯하야各商工團體에서는 그應急對策에 對하야 論議中으로 이제 京城을 中心으로 各商工界에서 論議되고잇는 荷物輸送에對한 重要意見을드르면

一、鐵道輸送이 困難한것에對하야는 船舶을 利用하야 輸送의 圓滑을圖할것 例컨대 日本內地로부터 中部朝鮮에 入荷할것은 仁川港에 陸揚하야 京城間은 鐵道及 荷物自動車便을 利用할것

二、荷物自動車의 不足에對하야는 市內 各要所에 臨時停車場을 設하고 그附近의 受荷者는 停車場에서 荷物을 受取하는 方法을取하야 車不足을 緩和할것

三、運轉手의 不足에對하야 無免許助手를 臨時運轉手로 採用하도록當局에 要望할것

等으로 製商들은 그實現에 邁進하야 混亂에陷한 配給의緩和를 圖하리라고한다

商工組合聯合會 代表者協議會

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五日午後二時부터 長谷川町 公會堂에서 各組合代表者協議會를열고

一、手小荷物及貨物의 受託制限에對한 應急對策

二、暴利取締令에對한 注意事項

等에對하야 協議하얏다

京城商工會議所 聯合部會開催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五日午後一時부터 同會議室에서 聯合部會를 開催하고 手荷物及貨物의 受託制限에 伴한取扱에關한件을 附議햇다

◇寫眞은商工組合聯合會協議會

熟練工養成 具體案決定

朝鮮工業協會에서는 四日午後二時부터 理事會를開하고 穗積殖産局長、西本商工課長臨席下에 熟練工養成의 具體的方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如左히 決定하얏다

一、募集人員 機械科、電氣科各百名

二、修業年限 機械科二年、電氣科一年

三、出願資格 小學校又는普通學校卒業程度의者

四、修業中手當으로서 一日卅錢을支給 電氣科는京電에 機械科는龍山工作에 委囑養成하기로함

京電의下期事業

興業費總額四百萬圓

京城電氣의下期事業計劃은 定時總會出席中인 武者專務가大橋社長과協議한結果 如左히決定하고 武者專務는 四日午後三時三十五分京城着歸任하엿다 下期의總事業總豫算은 約四百萬圓에 達하는데 右는諸建設材料가平均三割의昂騰을招來한때문으로 그內容은如左하다.

一、朝鮮送電으로부터 受電에關한引込線變電所等의 諸施設 一八〇萬圓

二、和泉町變電所新設 四〇萬圓

三、電車新造(大型보ー기車十輛이미注文濟) 二〇萬圓

四、뻐ー스二十輛新造 一〇萬圓

五、變電所增設과改造(十七個所) 五〇萬圓

六、瓦斯總計量器 二萬圓

七、地下게ー블管路設備 八萬圓

八、西大門ー京中前ー興化門間軌道의中央移設 一〇萬圓

九、鐘路東大門間軌條取替第一期工事

또增稅할지안할지 지금말할수업다

國民의擔稅力常、戰時다르다 賀屋藏相、議會서答辯

【東京特電】五日衆議院에서 「國民의擔稅力은 어떠케보느냐 또二段의 增稅는 언제하겟느냐」는質問에對하야 賀屋藏相으로부터 「常時와 戰時와는 國民의擔稅力이 달를것으로안다 또今後增稅與否는 事變推移如何에 依하야 決定될것으로서 지금에잇서서는 增稅한다고도 할수업고안한다고도할수업다」고答辯하얏다

證券所持少增

七月末現在京城組合의 有價證券所持高는 二億六千八百五十八萬八千圓으로 七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六萬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千四百八十七萬七千圓의 各增加이다

燃料展覽會開催

京城商工會議所主催로 來九月二十日부터 同二十六日에 至하야 七日間公會堂에서 燃料에關한 展覽會를 開催할터인데 出品物은 朝鮮에서 製造又는取扱하는 燃料及資料로 九月十日까지 出品을 申請하라한다

東一銀行 積極活躍

街頭進出方針

東一銀行은 新陣容確立과共히 營業의 積極化를企圖하고 街頭進出을款하야 活動中인데 結局

一、鐘路中心街의商店會社中未取引者는極力으로 銀行과關聯을 가지게한다

二、市內支店도 그方針으로한다

三、黃金町入口以東의 銀行取引處의 東一銀行移讓을 될수잇는대로 受함

等에 依하야 第一段의 目標로 하는모양이오 鮮銀도 可能한範圍에서 이에應할모양이라한다

浦項에米倉支店

米倉에서는 五日五前十時부터 臨時總會를開催하고 松井社長議長司會下

一、浦項에支店設置件

二、右에伴한定款一部變更件

을附議可決하엿다 浦項支店은秋收期까지에 開業할豫定으로 長倉一棟二百坪을 買收한것이라한다

寸鐵

○臨時增稅案 問題업시하게한 賀屋藏相 今後增稅與否는 알수업다고 議會에서 딱잘러대엿다고

○때가戰時體制下이니 누가무어이라 찍소리나할수잇슬가

○熟練工은 日三十錢의手當주고 一年乃至二年間 養成키로決定 但選拔되기가 바로엣날 科擧에壯元되기보다 어려울판

(八月二日) 東子商 京城府橋北町一〇一의七 李世鍾

株式 反弛裡에 底堅

今日의市勢 【五日】

前場反弛 低落一巡으로反戾商狀을보여 昨後場堅强하든場을止한市勢도 今朝의外電高等好材에不拘코 鐘新은反弛裡에 二五六、六에寄付하고 東新은二四、一〇으로 不變裡에寄付하엿는데 어쨋든人氣는 賣에기운모양으로 戾는賣하려고하며 小口買方들은時局을念慮코 小利만보이면 利喰을急히行하는 光景으로 今朝에는 幾分軟調를呈하야 東新은四十圓臺割 再割을보고 鐘新도二五五、八로 大引되엿다

後場揉合 後場은 東新二低 鐘新九低로 始場한後 日産低로諸株頭重하엿스나 底堅裡에揉合을거듭하엿다

人氣依然賣偏

大材料出現으로 大幅下落을보이면 大衆人氣는 一轉變化하야 모두賣募하게되는것이 常例인데 今回에는 더욱이나 北支事變으로因한 崩落後底入모양을보인다음 一高를보이고 다시低落하엿스며 北支事態는 依然混沌하야 透視가困難하므로 戾만잇스면 賣하려는人氣이다 그나마增稅까지한다니까 株式의急速回復은 至難이라고보아 賣玉利乘을敢行하고잇는데 或은 이賣人氣로해서 當分低價揉合은잇슬지모르나 果然北派의追擊이 奏効하야 다시低落이잇슬는지는 매우疑問이다 오히려 이賣人氣는 底入時의 一轉機로볼수잇스니 賣人氣로賣込하고 또賣込하면 이것이因이되어 도로혀反騰氣勢를 助長할는지도알수업는것이니 賣人氣에追從하야 賣追擊을하는것이 果然賢明한策일지 疑問이다 차라리買叩되어 示現하는低價를 買拾하고 持久戰에나서는것이 良策이아닐가하는 商談이不少하다

增稅後의 鐘新

增稅로 配當金에는 臨時課稅가 發表되엇는데 이鐘紡에對하야보면 二割五分中 新課稅를 밧는部分은 七分을除한 一割八分으로 二割即五十圓拂込에對해서는 一分八厘 九十錢이 稅額이된다 그러므로 株主는 年配當金十二圓五十錢中에서 九十錢을除한 十一圓六十錢을 所得으로 밧게된다 그러므로 利廻採算에도 變化가생기게되는데 이九十錢을 五分利廻로 還元하면 株價에는 十八圓의 影響이잇슬것인데 增稅決定으로 約十六圓低이엇스므로 配當稅로 因한影響은 거의 것산셈이라고 보는이도잇다

雜株는鈍狀

主力株의揉合으로 雜株는거의 不變의氣配를 보이고賣買도 閑散하다 今期의 氣配를列擧하면 昭和人絹五一、七 人造羊毛一七、八 日本紡新四九二 日華紡三一、二 曹新三〇、三 日曹팔푸一九、一로 人纖株가鈍狀이오 에라파이新一八、〇 神戶製鋼新三五、二 鹽水新三七、〇 東拓五一、〇 日水新五三、二 日本데젤二四、二 東滿팔푸二四、二로 거의不變이엇다

仁川新租入荷

十一錢에賣買 比前年六日빠르게

【仁川】去四日利川金炳哲氏로부터 仁川三進商會를通하야 朝鮮精米會社에 早稻千斤을賣渡하얏다는데 新租로서는 今年初入荷로서 例年에比하야 約六日빨른편이며 品質은 昨年品에比하야 倍以上良好한便이며 價格은每斤十一錢이엿다

國債 處分賣로 少弛

【東京電】增稅는 이미 織込濟이나 北支情勢의 混沌으로 一方本融事情의 透視困難이며 既發公債壓迫等도 생각되어 賣買가업서 內地債는 第三回五分이 五錢下押하얏슬뿐으로 無風狀態에 陷하고 佛貨도 五錢軟調를 示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二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五五

實物前場取引

▲北鮮拓 五三、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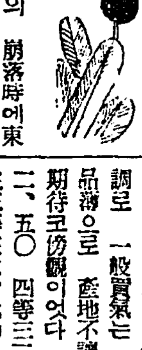
期米 高寄後에 低落

前場反落 今朝는 晴天으로 阪地天候三十一圓十一錢인 八丁反高를 揚하고 當은 二圓八十錢인 二丁高、中은 一圓十五錢인 四丁高로 先限은 丸의 買煽으로 三十圓〇九錢의 買聲까지잇섯스나 群衆의 賣壓으로 三十圓大寄인 九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四節〇五錢으로 反落함을따라 四節九十一錢까지 下押하엿다가 阪止九十七錢을보고 七十九錢에 止場하다

後場續落 後場은 二十九圓六十四錢인 十五丁低로 始場한後 三節六十六錢 同價後 四節六十四錢으로 低迷商狀이엇다

中先去益擴鞘

新甫十月限은最初中限에比하야 百七十五丁의大下鞘로 發會된後 中先의鞘는 益益擴大되어 今朝에는 二百二十丁程度의 開鞘를 보히다 要하면 中限은 極端境期인 九月末에 納會되는 限米인 如何間中限의 今後는現下丸仁三等米의 三十二圓五、六十錢市勢를 參酌하여보면 來月即當限時代에 入하야 正米와又當限價가합할것은明若觀火이므로 現中限도期近에入하야는 正米와의 一致한步調를取하고말것이므로 어떠한 弱材가突發하야 賣米市勢의 反落을招致하기外에는 膽勢一貫으로 一代를마치기가쉬울것갓다



今後의天災觀

今年에 들어서 第一次로 發生한 颱風은 南支那海로 빠저 有耶無耶의 狀態를 呈하고 第二次의 颱風은 九州地方을騷亂케하고 第三次颱風은 若干의災害를 與하엿고 또一時警戒되엇든 焦點은 北西로 進行하다가 最後에는 西北西로 方向을 轉換하야 日本內地及朝鮮地方에는 何等의 影響도 消滅하고 말엇다 그러나 남어지第四次乃至九次에 至하기까지의 颱風이 果然如何한 結果를招來할지 此가 注目處인데 남어지 五、六回에 亘한 颱風의襲來를 반드시 覺悟하리라고 謂키難하며 又는 今年의 颱風은 例年보다 일직 發生한만치 秋季의 早稻을 備하기가 十常八九일것갓고 過去의 天候激變으로 본다할지라도 土用明後는 殆히 良好하엿으나 梅雨期에는 雨가嫁兮되는바 이오또昨今의 酷暑가 氣候上으로 常한異狀이므로 今後의天候는 淡然樂觀한다고는 謂키難할것이다 두고 警戒할진저!

株……昨昨日의 崩落時에 東京서는 齊藤、串이 東新數千枚를投하고 西側이買하엿다고▲物을地場들이 買占하는모양이라 이取組가이러케되면 低落은疑問 ▲勿論時局透視는困難한것만큼 一氣回復도至難이오 當分低價揉合은不免이오 戾賣人氣優勢일것 ▲그러나新規突發事件이업는限 이以上의大幅低落은못되리라 ▲增稅도 東新日産等 一割配當株로서는年配當額五月中에서十五錢을減하게되니 이以上더行動할餘地도 疑問…(金剛城)

米……百七十五丁의 大下鞘로 發會된 新甫十月限도 今까지의 靑田鑑賞의 行動을남김이다 ▲但上의天候로보아서는 아즉도 賣方針을 捨할수업게되나 今後天候가 반드시 順調일것을 누라서 保證하는바이며 그러고 在米의事情을 뉘라서 敢히樂觀할소냐? ▲在米는道具米의 準備如何는 姑捨하고 需給의 悲觀이업지아니하니 豐凶未辨의 今日에잇서 肥貸에만 陶醉하자할것은 事實이다 何如間이로부터가 強軟兩派의 警戒할 後期(釜山)

正米 閑散裡에 區區

京城保合 定期는軟調이나 現品薄인대라 影響이업서 繼續保合이다 商談은 依然小口뿐이다 ○㊂三等三二、五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三二、四五

仁川軟調 今朝定期의 軟調로 一般買氣는 萎縮되엇스나 品薄으로 産地不讓하야 賣方이 期待코 傍觀이엇다 ㊀穀良三等三二、五〇 四等三一、七〇 四等銀坊主三等三二、一〇 ○多摩錦三等三二、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㊀一三、六 ○㊂一三、四〇

釜山閑散 前日米의 軟調로 低價突入賣盤이 漸次 出回하야 市場은 閑散하나 精米側의 消極買進을 期待하야 一般은 買控하야 市勢는 漸落하엿다 ㊁穀良三等三二、八〇 四等三二、七〇 一等白米三三、八八

大邱不變 一般買氣는 僅少하고 今朝期米의 低價로 商談은 杜絕狀態이엇다 ㊁穀良三等三二、三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三三、六〇

群山昂進 依然新規買物皆無의 現狀이나 精米側의 必需貨로 賣物도稀少하야 市價는 二十錢高로 昂進하얏다 ㊂銀坊主三等三二、一〇 四等三二、九〇 一等白米三四、一〇

木浦軟着 快晴續으로一部作況이 念慮되고 持米側의 賣渡로 投出增加하엿스나 刺戟材料가 皆無로 今朝에는 買氣가 업서 市價도 軟着的保合이엇다 ㊂銀坊主三等三三、三〇 四等三二、〇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 大阪期米先限 / 京城正米(三等) / 京城正米一石 / 正租(仁川)一等 / 一斤價三等 / 玄米神戶現 —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新 / 東新 / 鐘新 / 綿絲 / 棉花 / 人絹 / 砂糖 —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 中限 / 先限 (賣方・買方) —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短期主要取組高 / ◆算定代引日步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東京短期取組 / ◆朝取短期賣買高 —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日本各地期米 — [illegible]

京城物價 (五日)

[illegible]

海外經濟 四日

[illegible]

銀行券 四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 ◆阪神鰯油 / ◆日本麥粉市勢 —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 ◆東京金銀價 —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 ◆仁川雜穀 —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 ◆京城綿糸布市勢 —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朝取 益金證券 京城府黃金町二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東 期米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吉村取引店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六二九番